

碩士學位論文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左 東 烈

2010年 2月

#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指導教授 金 東 柱

左 東 烈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左東烈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Historical Folklore Studies of Cattle Breeding  
Ceremonies in the Postmodern Era in Jeju Area

Jwa, Dong-Yeo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istory

2010. 0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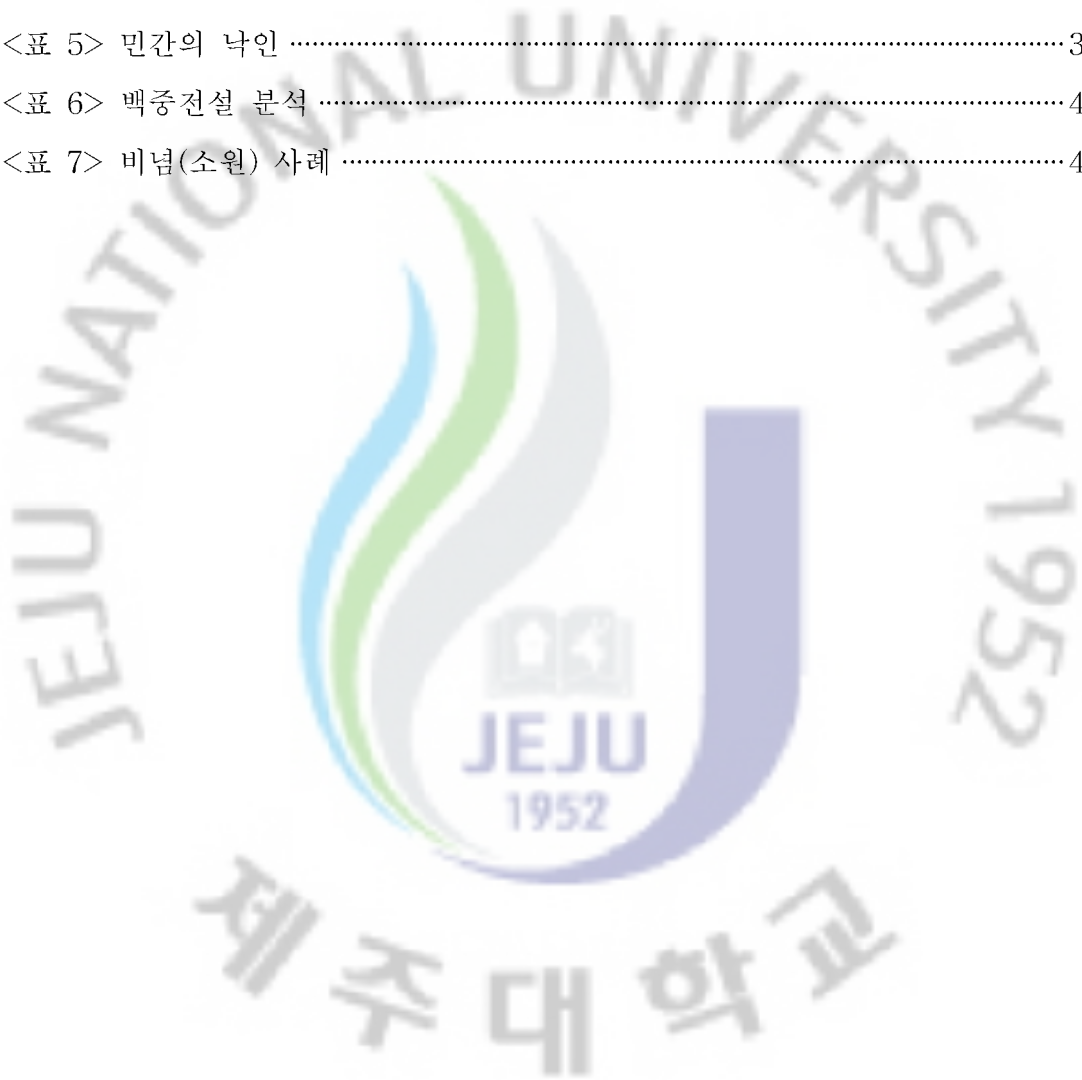
# 목 차

## Abstract

I. 머리말	1
II. 지방관아의 목축의례 종류와 내용	5
1. 마조제(馬祖祭)	6
2. 마제(禡祭)	12
3. 공마해신제(貢馬海神祭)	13
III. 민간의 목축의례 종류와 내용	19
1. 낙인코시	20
2. 귀표코시	31
3. 밧블리는 코시	34
4. 당(堂)의례	37
5. 백중의례	39
6. 백중 마불림의례	52
IV. 목축의례의 종합적 성격	58
1. 역사적 성격	58
2. 민속적 성격	60
V. 맺음말	64
참고문헌	69

## 표 목차

<표 1> 『국조오례의』의 마조단 의례 항목 .....	8
<표 2> 임진왜란 이후 공마 수송 상황 .....	14
<표 3> 『남환박물』에 나타난 15소 63자장 .....	23
<표 4> 민간에서 사용하는 낙인 글자 .....	29
<표 5> 민간의 낙인 .....	30
<표 6> 백중전설 분석 .....	43
<표 7> 비념(소원) 사례 .....	47



## 사진 목차

<사진 1> 의귀리 무너진 연디 .....	11
<사진 2> 마조단터 표석 .....	11
<사진 3> 해신사의 해신지위(海神之位) .....	17
<사진 4> 낙인 [上加] .....	27
<사진 5> 낙인 [凡] .....	28
<사진 6> 백중제(송당리) .....	45

## 그림 목차

<그림 1> 낙인코시 상차림(봉개동) .....	25
<그림 2> 귀표코시 상차림(가시리) .....	32
<그림 3> 송아지의 귀표모양(봉개동) .....	33
<그림 4> 망아지와 송아지의 귀표모양(가시리) .....	33
<그림 5> 백중제 상차림(성읍1리) .....	50
<그림 6> 백중제 상차림(송당리) .....	51

## Abstract

### Historical Folklore Studies of Cattle Breeding Ceremonies in the Postmodern Era in Jeju Area

This is the research regarding cattle breeding ceremonies of types and details in Jeju area in the Joseon Dynasty Periods.

Jeju was established stock farms by Mongolia when the Koryo Dynasty Periods Chung-Ryul king was second year(1276). And then, in Joseon periods, those were getting more important as national farms. Therefore, there are performed variety ceremonies for oxen and horses in Jeju.

Cattle breeding ceremonies of Jeju are separated to manage by government ritual and private. First, there were existed MAJOJE, MAJE and GONGMA-HAESINJE superintended by Jeju government. First of all MAJOJE is a kind of rituals for prayed to horse god and MAJE is a ceremony for winning of war or hunting. Lastly, GONGMA-HAESINJE is a ceremony for safe voyage that was used to offer horses from Jeju to central government.

Private Managers who care oxen and horses had to conduct more than government officers since there were the intimate relations between private ceremonies and the ways of ranching. Namely, farming method was closed with putting the cattle out to pasture. For that reason there were a lot of ceremonies for prevention of pasturage accidents.

Private cattle breeding ceremonies had different types such as NAKINCOSHE, GUIPYOCOSHE, BATBALLINEUNCOSHE, DANGEURYEO, BACJOONGEURYEO, BACJOONGMABULIMEURYO so on.

NAKIN is a brand which means buttocks of oxen and horses were stamped by hot metal and GUIPYO is a sign that cut a part of oxen and

horses ear. BATBALLINEUNCOSHE is a ceremony between sowing seeds and stepping of oxen and horses also DANGEURYEO is a ceremony for pray to god to find lost oxen and horses. BACJOONGEURYEO is a ritual in a cattle farm with oxen and horses at midnight on July 14 together with BACJOONGMABULIMEURYO is a ritual in a center of village which called DANG by shaman. These ceremonies had prayed for unharmed and prosperous of oxen and horses.

Cattle breeding ceremonies of Jeju are formed by shamanism. Ceremonies managed by government were also conducted by shaman and private ceremonies conducted by individual but this form was also shamanism.

Traditionally, people minded the god from sky, mountains and also water. In the Koryo Dynasty Periods, it was common to pray to sky, mountains and water god. However, in Joseon periods, it was prohibited because people thought that only emperors and kings have authorities to pray to god as sky, mountain and water.

For that reason, Jeju private ceremonies have been changed to individual ceremonies. In addition those were changed having a ceremony covertly during night

It got the points of cattle breeding ceremonies historically and traditionally so far. It has limited for research from government examples since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s. Moreover, in private cases, there was not sufficient precedent researching. On this account it had to research depends on field survey instead of disappeared examples. Finally, it needs to dig out hidden literature evidences and broad field survey in the future.



## I. 머리말

예로부터 인간에게 식량이나 의복의 제공은 물론 교통과 농사에 유용하게 이용되며 편리함을 주는 소·말·양·돼지 등은 신에게 바쳐지는 공헌물로 취급되었고, 이 중에서도 말은 신성한 동물로 취급되어 승배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말을 신성시하는 신마(神馬) 사상을 갖고 있어서 말을 영혼의 안내자로 인식하여 왕의 장례식에 목마(木馬)를 참여시켰고, 마을의 질병과 환난을 막아준다고 믿어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했다. 이러한 말은 제주 목장에서 많이 길러졌는데, 제주에 체계적인 목장이 설치된 것은 고려 충렬왕 2년 몽골이 ‘탐라 목장’을 설치하면서이다. 고려시대 몽골에 의해 목장이 설치된 이후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국가에 필요한 말을 생산하였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은 대명외교마(對明外交馬)· 어승마· 교통마· 통신마· 군마, 그 밖에도 농경 등에 이용되었다. 이 중에서도 군마와 대명외교마는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귀한 동물로 취급되면서 그 가치가 노비의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다.<sup>1)</sup>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는 물론 현재까지, 제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 이면서도 말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주의 목축과 관련된 의례들을 통하여 목축의 어려움과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신에게 의지하여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던 선조들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제주의 우마 사육 과정에서 나타난 의례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제주 관아(官衙)에서 주관하였던 목축의례와 민간에서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는 목축의례들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로서 제주 관아에서 치제했던 마조제·마제·공마 해신제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다.

1)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58-259쪽: 고려 초기 공인된 노비 가격이 오승포 100-120필이었고 고려 말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고려 후기 말 한필의 값이 2-3인의 노비들에게 해당된다고 하였고, 고려 중기 고종대(1213-1259)에는 말 한 필이 노비 3인과 교환되었다.

마조제(馬祖祭)는 마조단을 설치하여 봄·여름·가을·겨울, 일 년에 네 차례 말을 위해 지내는 제사였다. 제주는 고려시대 목축신인 방성(房星)이 비치는 곳이라 하여 목장이 설치되었으므로 마조제가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주에 마조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민간에서 구전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 고려시대의 마조단의 위치를 파악 하고자 한다.

마제(禡祭)는 전쟁이나 왕의 강무(講武) 때에 행하는 의례였으나 지방에서는 수령이 사냥 할 때 행해졌다. 제주에서의 마제 치제 기록은 없지만, 목사의 가을 순력 시에는 사냥을 하였으므로 마제가 행해졌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례로서 마제의 내용을 통하여 제주의 마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공마해신제는 공마선을 띄우기에 앞서 해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시대 해신사의 설립과 관련된 민간전설 등을 통해 해신제를 지내게 되는 계기와 그 이전의 해신제는 어떤 형태로 치제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했다. 또한 관아에서 주관하고 수령이 치제하는 해신제에 대해 민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목축의례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민간의 목축의례의 특징은 방목과 관련이 깊고 목축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간단히 치러지는 의례들이다. 민간에서는 이런 의례들을 ‘코시’·‘코사’·‘코스’ 등으로 불리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시’로 사용하였다.

첫째, ‘낙인코시’에서는 조선시대 관우마(官牛馬)에 사용하였던 낙인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우마(私牛馬)에 사용하는 낙인글자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낙인을 하는 시기와 낙인 하기 전에 지내는 낙인코시의 제물과 제차 및 의례에 담긴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귀표 코시’는 소유를 알리고자 하여 우마의 귀를 잘라 표시할 때 행하는 의례로, 귀표의 모양 및 ‘귀표코시’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밭벌리는 코시’는 밭에 씨앗을 뿌린 후 우마의 발로 밟아 주기 전에 행하는 의례이다. 우마 때를 이용하여 밭을 밟게 할 때 지내는 ‘밭벌리는 코시’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윤남동산당(堂) 의례’는 우마를 잃어버렸을 때 당신(堂神)에게 찾아가 비

는 의례이다. 제주는 방목으로 우마를 풀어놓아 키우기 때문에 우마를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제주의 중산간 지역에는 이런 성격의 당이 여러 개 존재한다. 그 중 윤남동산당신(堂神)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신으로, 여기에서는 이 당신의 유래와 의례의 절차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섯째, ‘백중제’는 제주의 대표적인 목축의례로, 백중날 밤 우마를 방목하는 목장에서 개별적으로 지낸다. 제주의 백중의례 특징과 그 성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백중과 제주에서의 백중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섯째, ‘백중마불림제’는 여름철 마을의 당(堂)에서 행해지는 의례이다. ‘마불림’에 대해서는 ‘장마 그침’을 기원하는 의례라고도 하고 혹은 ‘말 증식’을 기원하는 의례라고도 한다. 그러나 ‘마불림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 중 ‘기청제(祈請祭)’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마불림제’와 ‘기청제’의 성격을 비교하여 두 의례의 연관성을 파악 하는 한편 제주 무가(巫歌) 중 ‘세경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백중시기에 이루어지는 마불림제가 목축의례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제주 목축의례에 대해 역사적 성격과 민속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제주에는 방성이 비치는 곳이라 하여 국영목장이 설치되었으므로 방성에 대한 마조제는 이미 치제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외에도 마제·공마 해신제·낙인 등에 대해서는 관아에서 주관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문헌 자료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고찰 하였다.

민간의 목축의례는 방목으로 인해 형성된 것들이 많으며, 이들 목축의례는 목축 현장에서 지내진다는 특징과 함께 개별적인 의례로 은밀히 지내지고 있다. 목축의례의 개별성과 은밀성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적 측면에서의 문헌 자료로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제주 관련 기록들을 참고로 하였다. 문헌자료로 이건의 『제주 풍토기』에는 조선시대 우마를 돌보는 목자직(牧子職)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김성구의 『남천록』에서는 공마선을 보내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익태의 『지영록』에서는, 해마다 낙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였다.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

에서는 조선시대 제주 마정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특히 각 소장과 자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석익의 『탐라기년』에서는, 제주 광양에 마조단이 설치된 시기가 실려있다. 역사적 측면에서의 선행연구 자료로 한형주의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대한 연구로서 마조제와 마제 등에 대해 연구되었다. 남도영의 『제주도 목장사』에는 제주도의 말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는 물론 구전되는 전설과 의례 등에 대한 연구서로, 제주 목장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 책에 정리되었다. 진영일의 『고대 중세 제주역사탐색』은 고려시대 제주 관련 연구서로, 제주 말 가격과 제주의 향로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신동원의 『한국 마의학사』에는 수의학사에 대한 연구는 물론, 조선 초기 제주에서 행해졌던 약마회가 마조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군마대왕’은 마조제에 불렸던 무가로 추정하였으므로, ‘땃불리는 소리’의 후렴이 군마대왕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역사 자료로서의 선행연구 논문으로는 이육의 「불교 기양 의례에 관한 연구」·이범직의 「조선초기의 오례 연구」·김혜영의 「조선 초기 사전에 관한 연구」·강만익의 「조선시대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등을 참고로 하였다.

민속적 측면에서 김인호의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에서는 고려시대 마조단을 의귀리의 ‘무너진 언디’라고 하였으며<sup>2)</sup>, 제주도의 『제주도 민속』II에서는 제주의 목축과 관련된 민속들을 총괄적으로 조사·정리하였으며, 백중제·낙인코시·귀표코시·땃불리는 코시는 제보자들의 구술을 수록하였다.<sup>3)</sup> 장덕지의 『제주마 이야기』에서는 말의 질병과 치료 방법은 물론 말과 관련된 민속(지명·속담·의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sup>4)</sup> 진성기의 『제주도의 민속』에는 서부 지역의 ‘백중 전설’이 소개 되었고,<sup>5)</sup>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에서는 마블림의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 하였다.<sup>6)</sup>

문무병의 「제주도 당신앙 연구」, 이수자의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 기원에

2)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 下, 서귀포문화원, 2006.

3) 제주도, 『제주의 민속』II, 해동인쇄사, 1994.

4) 장덕지, 『제주마 이야기』, 제주문화, 2007.

5) 진성기,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관한 연구」와 「백중의 기원과 성격」, 이영배의 「제주도 낙인자형조사」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 저서와 논문 외에 제주도 각 마을의 마을지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민간의 목축의례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현지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밝히고자 한다. 목축의례는 개별의례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례의 양상 또한 개인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성산읍·남원읍과 제주시 구좌읍의 송당리와 하도리 마을을 조사했다.

이 지역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거 목축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으며, 목축의례에 있어서도 전통이 잘 남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는 과거 목축을 했던 사람들과 목축의례를 지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수집하였고, 그 외로 직접 의례 현장에 참여하여 의례 과정을 파악 하였다.

민간의 목축의례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할 수 없었고, 또한 구술자들의 제보 또한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 II. 지방관아의 목축의례 종류와 내용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주관하여 치제하였던 의례로는 마조제·마제·공마해신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는 의례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 1. 마조제(馬祖祭)

마조제는 말의 조상인 방성에게 지내는 제사로, 한양에 마조단을 두어 봄·여름·가을·겨울, 일년에 네 차례 말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내던 제사이다. 중춘(仲春)인 봄에는 말의 조상인 천사신에게 마조제를 지냈으며, 중하(仲夏)인 여름에는 말을 처음으로 길들여 가축화한 선목신(先牧神)에게 선목제를 지냈고, 중추(仲秋)인 가을에는 마구간의 토지신에게 마사제(馬社祭)를 지냈으며, 중동(仲冬)인 겨울에는 말의 건강을 해치는 재앙의 신을 달래는 마보제(馬步祭)를 지냈다. 이는 말이 활동하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 제사를 지내어 말의 무병과 번성을 빌고자 하였던 것이다.

마조제의 치제는 고구려 영양왕 23년<sup>7)</sup>과 고려 靖宗 12년(1046) 2월에 마조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8)</sup>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나타난 마조제 치제 관련 기록은, 세종 1년(1419) 12월 3일에 마조제를 지냈고, 현종 10년(1669) 2월 23일과 영조 8년(1732) 2월 20일, 정조 21년(1797) 7월 8일의 치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으나, 논란이 생겼을 경우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마조제의 치제는 오례의의 규정에 따라 일 년에 네 차례 행해졌을 것이다.

고려시대 마조제는 마조단을 설치하여 마조·선목·마사·마보제가 행해졌지만, 제사의 명칭에 있어서 구분하여 부르지는 않았다. 『왕조실록』에서 2월에 지내는 마조제는 물론 그 외의 마사제와 마보제 등, 마조단에서 지내는 제사를 모두 마조제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마조단은 한양의 전곶목장에 있었고, 조선시대의 마조제 또한 전곶목장에서 치제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의 마조단을 조선시대에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조단을 전곶목장에 설치하여 목장에서 마조제를 치제한 이유는, 목축을 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조단의 크기는 사방이 이장 일척, 높이가 이척 오촌, 그리고 사방으로 계단

7)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嬰陽王 23年: 祭馬祖於蘇城北.

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12년 2월.

이 있었다. 신위(神位)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을 말하는 것으로, 마조신은 천사지신(天嗣之神), 선목제는 선목지신(先牧之神), 마사제는 마사지신(馬社之神), 마보제는 마보지신(馬步之神)이라 하였다. 축판(祝板)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을 알리는데, 마조제와 선목제에는 ‘조선국왕’이라 쓰고, 마사제와 마보제에는 ‘국왕’으로 쓰게 했다.<sup>9)</sup> 이는 마조와 선목은 국내의 신이 아니므로 ‘조선’을 알리는 것이고, 마사와 마보는 국내의 신이므로 ‘국왕’만을 써 넣도록 한 것이다.

마조단에서의 제일은, 고려시대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의 길일(吉日, 좋은 날)을 정해 제사 지내었으나, 조선 태종 11년에 치제 날짜가 잘못되었다 하여 제일을 명확히 하였다.

예조에서 상언하기를, 『월령』에 ‘마조 등의 제사는 모두 강일을 쓴다’하였는데, 강일은 甲·丙·戊·庚·壬日이 분명 합니다.<sup>10)</sup>

예조의 건의에 따라 고려시대 길일에 치제되었던 마조단의 제사는 조선 태종 11년에 제사 지내는 날짜를 명확히 하였다. 봄에는 2월 중순 후, 갑·병·무·경·임일에 해당되는 날에 마조제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여름에는 5월 중순 후, 갑·병·무·경·임일에 해당되는 날, 가을에는 8월 중순 후, 갑·병·무·경·임일 해당되는 날, 겨울에는 11월 중순 후 갑·병·무·경·임일에 해당되는 날을 제일로 하였다. 제사의 희생은 돼지 한 마리로 하고, 제사의 폐백은 백색으로 길이는 1장 8척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마조단 의례의 항목은 <표 1>과 같다.

조선시대 국가의례는 예조(禮曹)에서 맡아 하였다. 그러나 마조제는 말을 기르고 번식 시키는 마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복시(司僕寺)에서 주관하였다. 사복시에서는 마조제를 무당과 기생들에 의해 치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마조제를 치제 하였던 전통 방식의 제사였다.

9)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1月 4日: 馬祖祝稱朝鮮國王 先牧祝稱國王 先牧亦非境內之神 許依馬祖之例.

10) 『太宗實錄』 卷22, 太宗11年 10월 임자: 月令有馬祖等祭 皆用剛日所謂剛日 爲甲丙戊庚壬明矣.

<표 1> 『국조오례의』의 마조단 의례 항목

儀禮種類	祭日	壇壝(단유)	祝文의國王稱號	祝文의神主名稱	犧牲(희생)	幣帛(폐백)
馬祖(마조)	仲春中期後剛日(중춘중기후강일)	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四出陛一壝	朝鮮國王	天駟之神(천사지신)	豚1	白色張一丈八尺
先牧(선목)	仲夏中期後剛日(중하중기후강일)	上同	朝鮮國王	先牧之神(선목지신)	豚1	上同
馬社(마사)	仲秋中期後剛日(중추중기후강일)	上同	國王	馬社之神(마사지신)	豚1	上同
馬步(마보)	仲冬中期後剛日(중동중기후강일)	上同	國王	馬步之神(마보지신)	豚1	上同

고려시대 국제(國祭)의 주류를 이루면서 복을 빌었던 제사들은 유교적인 방식으로 치제되지 않고, 무당에 의해 치제되었던 제사들이었다. 이들 제사들은 조선 시대에는 음사<sup>11)</sup>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마조제 또한 조선 중기까지 무당에 의해 치제되었기 때문에 음사라는 논란이 많았다. 예조에서는 이를 유교식 제사로 바꾸려 하였고, 여러 차례 임금에게 건의 하였다. 다음은 태종 13년(1413) 예조의 우상언이 건의한 내용이다.

사복시에서 마신의 제사를 무격(巫覡)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런 음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앞으로 마조·선목·마사·마보의 신에게 치제할 때는 사복시의 관원이 향을 받아서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sup>12)</sup>

위의 내용은 사복시의 관원들이 마조제를 지내면서 국가의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종래의 방식으로 무격으로 하여금 치제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조에서는 ‘향과 축을 받드는 유교식 제사’로 바뀌야 한다고 임금에게 건의 하였다.

그러나 사복시가 주관하는 마조제는 군마와 관련된 중요한 제사였으므로 제사의 방식을 갑자기 바꾸지 못하고 전통방식으로 치제되었다. 세종 원년 12월에 마

11) 고려 공민왕 19년(1370), 명(明)나라에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천하에 神祀로서 백성에게 공이 없고 사전에도 응당하지 않은 것은 음사이니 관리는 이를 치제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12)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1月 4日: 司僕寺以 巫覡祭 馬神 陰祀也. 請自今祀 馬祖, 馬步, 馬社, 先牧之神, 令司僕官受香以祭.



조제의 치제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았다.

사복시의 아전들이 마조제를 빙자하여 살곶이목장에서 소를 잡고 기생을 데려다 방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sup>13)</sup>

사복시에서 주관하는 전통 방식의 마조제는 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무격들이 의례를 치제하는 한편 기생들을 같이 참여시켜 춤과 가무를 하는 의례로 행해지고 있었다. 전통방식의 마조제는 제(祭)와 축(祝)을 겸하여 신을 즐겁게 하는 축제였고, 예조에서는 이를 유교식으로 바꾸고자 계속 건의 하였다. 그러나 전통방식의 제사를 갑자기 유교식제사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고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종(朝宗)에 이르도록 모두 금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점차로 없애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sup>14)</sup>

마조제가 무격에 의해 치제되고 있어 논란이 많았지만, 이는 오래 전부터 행해지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갑자기 바꾸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결국 임금도 무격이 치제하는 제사를 오랜 전통으로 받아 들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제주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마조단이 설치되어 마조제가 행해졌다. 기록에 의하면 마조단이 설치된 곳은 ‘광양’이며 설치된 시기는 1852년으로 나타난다.<sup>15)</sup> 제주에 마조단이 설치된 시기는 조선 후기이나 제주에 이미 고려시대 몽골식목장이 설치되어 소와 말들이 들판을 덮을 정도로 대량 방목되었고<sup>16)</sup>, 조선 시기에도 국영목장으로 군마가 생산되었으므로 우마를 위한 의례는 당연히 행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13) 『世宗實錄』 卷6, 世宗 1年 12月 3日: 司僕寺官吏等托以馬祖祭, 會于箭串, 宰牛携妓, 恣意設宴.

14) 『世宗實錄』 卷72, 世宗 18年 5月 11日: 今後勿行箭串司僕寺馬祭 巫覡之事甚怪 宜痛禁然始於中古 而祖宗所未盡禁 豈敢遽革於今日乎. 予當漸次除之 以門小貞之端.

15) 김석익, 『耽羅紀年』 卷之四, 110쪽: 春判官任百淵 健馬祖壇于廣壤.

16)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탐라문화연구소, 2008, 260쪽.

제주의 마조제에 대해서는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

명산대천은 모두 소사에 기록되어 있으나 한라산만은 누락되어 있고 노인성 및 마조제는 소사(小祀)에 올라 있는데, 예법 본뜻이 지극히 심오하고 또 엄밀합니다. 이른바 마조(馬祖)는 방성(房星)에 소속된 천사(天嗣)의 신(神)으로 본주는 이미 방성 분야이기 때문에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방성 및 노인성이 비치는 지역인데 해마다 향축(香祝)을 내리어 예(禮)에 따라 실행하여야 합니다.<sup>17)</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는 방성이 비치는 곳이라 하여 목장이 설치되었는데 마조제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향과 축’을 내려 마조제를 지내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마조제 외에도 한라산신제와 노인성제를 ‘향축’을 받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형상 목사의 건의 내용과는 달리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는 이미 한라산 정상에서 행해지고 있었는데도 이형상목사는 이들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한라산신제와 노인성제, 마조제 등이 무속식으로 치제되었기 때문에 제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신제는 이형상 목사의 ‘향과 축을 받들어 지내는 제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광양당을 없애고 국가제사에 편입되어 치제 되었다.

이형상 목사의 건의에는 한라산신제 외에도 마조제와 노인성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마조제와 노인성제는 한라산신제와 같은 무속의례였기 때문에 이를 유교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 목사의 건의 결과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만이 ‘향과 축’을 받드는 유교식제사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마조단이 설치된 ‘광양’은 탐라국시대부터 호국신을 모시는 광양당을 비롯하여 삼성혈과 사직단·풍운뇌우단·여단 등 제사터가 모여 있는 곳이다. 광양에 마조단이 설치되기 이전 제주의 마조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양의 경우 고려시대 마조단에서 조선시대에도 마조제를 치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에서도 고려시대 마조단이 있었던 곳에 마조단을 설치했을 가

17) 이형상 저, 『남환박물』, 『속탐라록』, 김봉옥 역, 제주문화방송, 1994, 355쪽: 老人星及馬祖祭之載於小祀者 禮法本意 至深且密爲白乎 所謂馬祖者 槩措房星所屬 天駟之神是白去乙 本州既是房星分野是如 作爲牧場是白沙餘良 則歲降享祝依禮設行.



<사진 1> 의귀리 무너진 연디: 2004년 5월 11일 촬영

중간 중간에 단을 지어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흔적이 보인다'18)고 하였다.

현지답사를 통해 본 의귀리 마을의 '무너진 연디'는 흙을 쌓아 올려 작은 동산처럼 만들었는데 사방으로는 돌계단이 놓여 있고, 정상은 평평하며 잔디가 깔려 있었다. 정상의 남쪽 방향으로는 커다란 바위들이 계단처럼 놓여 있었다. 그러나 김인호 외에는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길 바란다.

1852년 '광양'에 설치되었던 마조단은 순종 1년(1908) 7월 일제의 제사 철폐령에 의해 폐지되었다.19) 현재 광양 마조단터에는 마조단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20)

18)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 下, 서귀포문화원, 2006, 510쪽.

19) 『純宗實錄』 卷2, 純宗 1年 7月 23日: 馬祖壇 自今廢止고 該壇祠의 基址 國有에 移屬 함.

20) 한라일보, 『잊혀져 가는 문화유적』, 한라일보사 유적지 표석세우기 추진위원회, 도서출판 각, 2002, 126쪽: 마조단은 방성에 제사 지내던 제단으로 1852년 이곳에 창건되었다. 방성은 천사성이라고도 하여 곧 말의

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려시대 제주의 마조단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 마조단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인호는 고려시대 제주의 마조단터는 남원읍 의귀리의 '무너진 연디'라고 하였다. 의귀리의 무너진 연디라 불리는 곳은 그 높이가 6~7m가 되고, 그 넓이는 661㎡(200여 평) 가량이며, 사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사진 2> 마조단터 표석: 2009년 11월 9일 촬영.

## 2. 마제(禡祭)

‘마제’는 국가의례 중 소사로서 전쟁의 신인 황제(黃帝)와 치우(蚩尤)에게 드리는 제사로 출정식이나 전쟁터에서 행하던 의례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강무(講武) 시행 전이나 전렵(畋獵)을 하기 하루 전 제사로 더 많이 운영되었는데, 강무 때에는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에게 제사하고 전렵할 때는 치우에게만 제사하도록 하였다.<sup>21)</sup>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마제는 소사에 포함되었으며 선목·마사·마보·포제의 의주(儀註)에 따르도록 하였고, 치제는 강무 1일 전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sup>22)</sup> 축판의 신위는 ‘치우지신(蚩尤之神)’이라 칭하도록 하였고, 축문에 국왕의 칭호는 ‘조선국왕’으로 하였다.<sup>23)</sup> 마제를 지낼 때 신위에는 곰가죽 자리를 깔고 궁시를 앞에 놓으며 활꽃이를 뒤에 세우고 초(裳)를 깔고 큰 기(旗) 둘을 남문 밖 유문에서 십보(十步) 거리에 세웠다.<sup>24)</sup>

마제는 군사와 관련된 제사이지만 선목·마사·마보·포제와 그 의주(儀註)가 같다 하였으므로 이는 말과 관련된 제사로 치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마제는 목사의 가을 순력 시 전렵(사냥)을 하기 전에 행해졌을 것이다. 전렵을 하는 이유는 진상할 짐승들을 사냥하는 한편 전렵을 통한 군사훈련 및 수령들의 심신을 닦기 위한 것이다. 『탐라순력도』 중 「교래대렵」은 10월 11일 교래리 일대에서 사냥하는 장면으로, 그날 삼읍의 수령은 물론 산마장의 감목관과 많은 군사와 군마가 동원 되어 행사를 치르고 있다.

교래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으로 이 날 사냥에 참여한 관원은 삼읍수령(제주목사·대정현감·정의현감)과 감목관이며 사냥

---

조상을 의미하였으며 이곳에서 지내는 제사를 마조제라고 하였다. 말이 인류에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감사와 기원을 담아 제사 지냈는데 서울에서는 동대문 밖에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

21) 『世宗實錄』 卷23, 世宗 6年 2月 癸丑.

22) 『國朝五禮儀』 序禮 卷1, 吉禮 時日.

23) 『國朝五禮儀』 序禮 卷1, 吉禮 祝板.

24) 『國朝五禮儀』 吉禮 卷2, 享先牧儀.

에 동원된 인원은 마군 200명, 보졸 400여명, 포수 120명이다.<sup>25)</sup>

지방 수령들의 사냥은 ‘전렵’이라 하며 군사훈련과 무예를 익히기 위한 행사일 뿐 아니라 진상에 대비하는 중요한 행사로 이 날 획득한 짐승들은 후일 비양도에 방목하여 진상에 대비하였다. 지방의 전렵시에 행하는 마제는 크게는 진상과 지방 수령의 심신 단련 및 군사들을 훈련하기 전에 행사에서의 무사를 비는 중요한 의례였다. 이에 사복시에서는 전렵에 앞서 하루 전에 마제를 지내어 군사와 군마들의 무사하기를 빌었다.

### 3. 공마해신제(貢馬海神祭)

‘공마해신제’는 진상하는 말을 실은 배가 출항에 앞서 수령이 순항을 기원하며 해신에게 비는 제사이다.

조선시대 악해독(嶽海瀆)과 풍운뇌우(風雲雷雨)에 대한 제사는 국가의례 중 중사(中祀)로 치제 되었다. 그 중 해신(海神)에 대한 제사는 동해·서해·남해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로, 고려시대 해신에 대한 제사는 민간신앙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음사로 규정되다. 하지만 풍운뇌우(風雲雷雨)·명산대천(名山大川)·악해독(嶽海瀆)은 수해(水災)·한재(旱災)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이런 자연재해는 민생의 생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 제사를 막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국가의례에 포함시켰다. 즉 국가의례로서 해신에 대한 제사는 가뭄과 홍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해신에 대해서는 바다의 용으로서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해신에 대한 제사는 수재나 한재와는 무관하였다. 이는 항해에 필요한 적당한 바람을 기원하며 해신에게 드리는 제사였고, 공마선(貢馬船)이 제주 해협을 무사히 건너 빠른 시간에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길 기원하여 지내는 의례였다.

<sup>25)</sup> 이형상, 「교래대렵」, 『탐라순력도』 (영인본), 김동전 그림해설, 제주시, 1994, 30쪽.

제주에서 진상하는 공마는 연례공마로서 세공마·삼명일진상마·연례진상마가 270필 내외이며 3년마다 진상하는 식년공마에는 진(辰)·묘(卯)·을(乙)·오(午)·유(酉)가 들어가는 해에 200~700필 내외가 진상되었다.<sup>26)</sup>

고려시대 공마를 수송하던 포구는 대정현의 당포(대포)와 정의현의 당포(표선), 제주목의 조천포 등이 유명하였고<sup>27)</sup> 그 외에도 애월포 등이 이용되었으며, 시기는 봄에서부터 여름에 걸쳐 이뤄졌다. 공마선은 평년에 10척이 왕래하는데 임진왜란 이후 공마 수송 상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임진왜란 이후 공마 수송 상황<sup>28)</sup>

사공 및 배의 크기	공마 구분	연례 마	정조마	동지 마	탄일마	홍구마	노태마	공마	대정 마	상장 진상 별마	계
김성삼 (5발(把)반)			2필	2필	2필	1필	1필	24필		1필	33필
한순재 (5발)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14필	6필			29필
고순창 (5발)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19필	1필			29필
이항보 (4발 반)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20필				29필
고귀득 (5발)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21필				30필
양후대 (4발 반)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19필				28필
이 동 (5발)		2필	2필	2필	1필	1필	18필	1필	1필		28필
강신태 (5발 반)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21필				30필
고원재 (6발)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22필				31필
백태영(6발 반)	1필	2필	2필	2필	1필	1필	22필				31필
계	8필	20필	20필	20필	10필	10필	200필	8필	2필		298필

공마를 싣고 제주에서 출발한 배는 전남의 해남이나 강진 또는 무안 등지로 도착하는데 바닷길이 멀고 험하여 항해를 하는데 항상 위험이 따랐다.

고려 공민왕 23년 『제주행병도평의사사신(濟州行兵都評議使司申)』 문서에는 탐라의 목호 토벌을 위해 최영 장군이 바다를 건널 때의 위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26) 고창석, 「목마장과 마정」, 『북제주군지』 上,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 2006, 477쪽.

27)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마문화연구총서V,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173쪽.

28) 고창석, 앞의 글, 479쪽.

최영은 관군인을 거느리고 8월 12일에 포왜선 3백 척에 나누어 타고 진도에서 회항하여 출발하였으나 소한, 보길도에 이르렀는데, 역풍이 되어 24일에 다시 출항하였으나 사나운 바람이 불어 배 30여 척을 잃고 다시 추자도로 들어갔다. 당월 28일 출발하여 제주 명월포에 도착하여 닻을 내려 정박 하였다. 관마 1,700필을 간선하여 관에 이르렀으나 사나운 바람으로 명월포에 정박해 있던 군선 40여 척이 바위에 부딪쳐 파괴되었다.

최영은 9월 22일에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 화탈이해도에 이르렀으나 역풍을 만나 명월포로 되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출항하여 추자도에 이르러 정박했다. 10월 5일 출항하여 취도에 이르렀으나 또 악풍을 만나 추자도로 돌아가 정박하였다가 당월 18일에 출항 하였다. 그러나 또 악풍을 만나 진도 및 소한도, 보길도 등지에 이르렀다. 배에 실은 마필은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물에 빠져 잇달아 죽었는데 그 수가 무려 93필에 이르렀다.<sup>29)</sup>

위의 내용은 고려 말 최영이 탐라의 목호 토벌을 위해 제주로 오는 과정 및 제주에서 목호 토벌 후 제주를 출발하여 돌아 갈 때의 항해의 어려움을 알린 글이다. 최영은 9월 22일 제주에서 출항 하였지만 역풍으로 인한 회항을 거듭하다 11월 3일에야 목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를 출발한지 40일만이었다.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뱃길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제주로 오는 뱃길 또한 쉽지 않았다.

고려시대 전라도 나주목에서 제주로 오는 뱃길은

- ① 무안 대굴포 → 영암 화무지와도 → 해남어란량 → 추자도(7주야)
- ② 해남 → 삼재포 → 거요량, 삼내도(3주야)
- ③ 탐진 → 군영포 → 고자황이 · 노슬도 · 삼내도 → 추자도(3주야)이다. 이것은 추자도까지의 일정이며 이곳을 지나면 파도가 흉흉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제주 해협이다. 여기에서 다시 대소화탈도를 건너야만 애월포나 조천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날씨가 좋았을 경우이고 보통은 이보다 시일이 더 걸리고 고통스러웠다.<sup>30)</sup>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와 추자도 사이는 두려운 바다였고 이를 지나더라도 추자도에서 목포 · 해남 사이의 뱃길 또한 평탄한 항해

29) 고창석, 「제주행병도평의사사신」, 『탐라국사료집』, 신아문화사, 1995, 293-297쪽.

30)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225쪽.

는 아니었다. 공마선의 위험한 뱃길에 대해 『남환박물』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마선은 제주 조천포·화북포·애월포를 출발하여 화달도-사서도-추자도 앞을 경유하여 본도에 도달하는데 기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도착지는 전남 어란(於蘭)·갈두(葛頭)·관두(館頭)·이진(梨津)·강진(康津) 등지다. 그러나 바람을 잘못 만나면 남쪽의 유구국이나 일본의 일기도(一岐島)까지 표류한다.<sup>31)</sup>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전혀 예상치 않은 주변 국가로의 표류도 일어났다. 항해가 잘못되었을 경우 표류하는 주변 국가로는 일본과 유구국 그리고 일기도로 갈 수 있다하여 표착 가능 국가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그 곳으로의 표류가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공마선의 항해가 더욱 어려운 것은 조선시대 정의현감을 지낸 김성구의 『남천록』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말을 실은 배는 다른 배와는 달라서 반드시 강한 바람이 있고 나서야 배를 출발시키는데 실은 것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만약 하루 만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 섬에서 머물러야 하므로 말이 많이 상하기 때문이다.<sup>32)</sup>

공마를 신고 항해할 때는 다른 항해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바람을 고려해야 하는데 강한 바람을 이용해야만 빠른 시간 내에 항해를 마칠 수 있고 항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말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마선을 띄우기에 앞서 각 읍의 수령들은 해신에게 제사를 드려 공마선이 빠른 시간 내에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빌었다.

수령들이 해신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 했던 것은 공마에 대한 책임은 삼읍의 수령들이 운반으로 맡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물어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 고종 4년(1876)에는 공마 운송시에 죽은 말이 많아 공마 책임이 있는 관리들을 파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31) 이형상 저, 「남환박물」, 『속탐라록』, 김봉옥 역, 제주문화방송, 1994, 303-304쪽.

32) 김성구 저, 「남천록」, 『속탐라록』, 김봉옥 역, 제주문화방송, 1994, 231쪽.



이번에 제주에서 바치는 말을 중도에 이렇게 많이 잃어버린 것은 전날에 없던 일입니다. 잘 선발하여 봉진하지 못한 해당 목사 이후선과 잘 호송하지 못하여 많은 수량을 잃어버리게 한 임파현령 윤홍선을 모두 해당부에 지시하여 잡아다 심문하고 처벌하게 할 것입니다.<sup>33)</sup>

공마선이 바람을 잘 만나 순조로운 항해를 할 경우는 조천포나 화북포에서 출발하여 해남까지 하루에 도착하기도 했고 또는 하루에 왕복을 하기도 했다.<sup>34)</sup> 하지만 이는 순조롭게 항해가 이뤄졌을 경우이고 대부분은 2~3일이 소요되었고



<사진 3> 해신사의 해신지위  
(海神之位): 2009년  
9월 18일 촬영.

길게는 10일을 넘기기도 하였으며, 서울까지 가는 데는 약 2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그 책임을 맡은 제주목사는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어 공마선이 무사히 항해를 마치기를 빌었다.

제주 화북포에 해신사가 설립된 것은 순조 20년(1820)으로 한상목 목사가 해상 활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신사(海神祠)를 세웠으며, 헌종 7년(1841)에 이원조 목사가 해신지위(海神之位)라는 신위(神位)를 돌에 새겨 안치케 했다.<sup>35)</sup>

제주에서 지내는 해신제는 남해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희생으로는 양 한 마리·돼지 한 마리를 사용하도록 했고, 폐백은 방위에 맞게 남해신에게는 붉은 색을 사용했다. 그리고 제사 지낸 후 폐백과 축은 물에 넣도록 하였다.<sup>36)</sup>

다음은 헌종 7년(1841) 제주목사 이원조가 공마선을 발선시킬 때에 해신에게 드린 제문(祭文)이다.

33) 『高宗實錄』卷4, 高宗 4年 8月 24日: 今番濟州先後運貢馬沿路故失若是多前所未有不善擇封之該牧使李後善不謹護送以致故多地方官臨縣令尹興善並令該府問處之.

34) 『睿宗實錄』券3, 睿宗 元年 2月 29日 甲寅:우마 도적들은 공사목장에서 양마를 훔쳐 밤을 타서 육지로 나가 아침에 가서 저녁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35)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옛터』, 세림원색인쇄, 1996, 260쪽.

36) 『世宗實錄』券130, 吉禮儀式: ‘祭嶽海瀆儀’에서 海와 瀆의 축과 폐백은 沈池하도록 하였다.

貢馬放船時祭海神文

維年 月 日

제주목사 이모모는 삼가 병마중사 심구조를 보내어  
돼지 1필, 찬 12그릇, 술 1병으로 조정에 조회하는  
바닷가에 제사하면서 해신에게 고합니다.

큰바다 넘실거리려 하늘에 닿아 벽이 없습니다.

아득한 이 탐라도도 역시 왕국의 경내에 매였습니다.

매년의 공헌하는 말과 사람을 실은 배는 신의 직분입니다.

오! 바다에 신이 계셔 바람의 신을 지휘합니다.

못 배가 순조로이 건너 천리가 한 순간입니다.

혹 거친 적재물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께서 자애롭지 않음이 아니라 관리의 정성이 모자란 것입니다.

지금의 공헌의 배가 이미 떠났다 되돌아 왔습니다.

한 척이 침몰하여 못 생명이 모두 손상했습니다.

허물은 실은 제게 있어서 조심스러이 송구합니다.

게으름이 제 몸이 아님을 일찍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만약 드리는 정성 물리치면, 침식이 달지 않습니다.

다시 별자리를 점쳐 거둬 배들을 정비합니다.

사공들 돛대에 의지하여 흰 파도에 시선 가득합니다.

지어미와 자식들 손잡고 밭을 구룹니다.

잠깐사이 닦을 올리면, 죽고 삶의 순간입니다.

감히 신의 은혜를 바라노니

한자리를 준비해 주소서

바람이 남쪽에서 있어 급하지도 더디지도 않게 하소서

마치 물고기 수염 날리고 새들이 날개 펴듯 하소서

사람들 기뻐하고 말들은 줄지 않습니다.

향 갖추어 정성 드리며 공손히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감동 있으면 반드시 응답함이 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뚜렷하신 영험의 신이여, 저의 정성을 살피 주소서.<sup>37)</sup>

37) 『탐라록』 上, 貢馬放船時祭海神文: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541-542쪽.

해신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용으로 인식되었지만, 제문의 내용으로 보면 해신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향해 시에 급하지도 더디지도 않는 바람을 보내주길 기원하고 있다.

조선시대 수령들이 해신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목사가 탄 배가 제주를 향하여 오던 중에 풍랑으로 배가 좌전되어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데, 큰 뱀이 나타나 배의 터진 구멍을 막아줘 모두 살아났다. 제주에 도착한 후 그 뱀이 들어간 구멍이 있는 곳에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지냈다.<sup>38)</sup>

해신제를 지내는 이유에 대해 민간에서는 목사의 생명을 구해준 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신제는 1820년경부터 해신지위를 모셔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내고 있다. 해신사에서 마을제는 정월 초5일 새벽에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 화북리 마을 사람들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한다.

### Ⅲ. 민간의 목축의례 종류와 내용

민간의 목축의례에는 낙인코시·귀표코시·땃불리는 코시·당의례·백중의례·백중 마불림의례 등이 있는데, 이들 의례들은 방목과 관련된 의례들이다. 이 중 낙인코시·귀표코시·땃불리는 코시는 사라져 버린 의례이고, 당의례·백중의례·

38) 오성찬 외, 『화북리』 제주의 마을⑨, 반석, 1989, 125쪽.

백중 마불림의례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례들이다.

## 1. 낙인코시<sup>39)</sup>

### 1) 관우마(官牛馬)의 낙인

‘낙인’이란 쇠로 만든 자형(字形)이나 도형(圖形)을 불에 달구어 물건·동물·사람에게 찍는 것을 말하며, 물건이나 우마에 사용하는 경우는 소유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이고 사람에게는 형벌로 이용하였다.

제주에서 낙인을 처음 사용한 것은 고려 충렬왕 2년(1276) 몽골이 수산평에 160필의 말을 방목하던 시기로 추정되는데, 당시 몽골이 소유하였던 14개 목장의 말에는 ‘대인자마(大印子馬)’라는 낙인을 하였으므로 제주에서도 낙인을 사용하였을 것이다.<sup>40)</sup>

고려시대 제주목장은 해안의 평야지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민간의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다. 이에 조선 세종 11년(1429)에 제주 출신 고득중(高得宗)의 건의를 받아 들여 한라산 산록으로 목장을 옮겨 돌담을 둘러 사람과 말이 사는 곳으로 나누었는데, 세종시기 제주 목장은 20소(所) 60둔(屯)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었다. 이는 그 후 제주 목장이 10소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sup>41)</sup>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제주 목장이 11所(牛牧場 1개) 58字場이라 하였다.<sup>42)</sup> 그러나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에서는 15所 63字場이라 하였고,<sup>43)</sup> 그 후 1704년 송정규 목사는 부실한 목장을 통폐합하여 10소로 재정비하였는데, 10소장의 체제는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목장의 각 소장은 자목장(字牧場)으로

39) 진성기, 『제주 무속학사전』, 제주민속연구소, 1969, 299쪽: ‘코시’란, 민간 신앙에서는 그 집안의 농사와 축산에 있어서 풍등과 번성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40)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마문화연구원총서V,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157쪽.

41) 김동진, 「조선시대 제주 목마장의 역사」, 『제주 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야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7, 109쪽.

42) 이원진 저, 『탐라지』, 『속탐라록』, 김봉욱 역, 제주문화방송, 1994, 80쪽, 126쪽, 139쪽.

43) 이형상 저, 『남환박물』, 위의 책, 345쪽.

구성되었으며, 자목장에는 원칙적으로 암말 100필, 수말15필로 군(群)을 만들었고 자호(自號,千字文)를 붙여 소속된 목장의 牛馬에 낙인을 하였다.

낙인은 관우마(官牛馬)는 물론 사우마(私牛馬)에도 하도록 하였는데, 관우마에는 천자문의 70자 이내의 글자를 사용하였고, 사마에는 천자문의 70자 이외의 글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sup>44)</sup> 사목장의 말에는 낙인을 찍어 종마(種馬)·판매마(販賣馬)·진상마(進上馬) 등을 구분하였는데, 종마에는 ‘부(父)’자의 낙인을 하여 출륙을 금하였고, 판매마에는 ‘시(市)’자의 낙인을 하여 출륙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市)’자가 없는 말들이 섬 밖으로 팔려나가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예종시기에 이를 어긴 자들을 다음과 같이 처벌하였다.

제주 상인이 사들인 마(馬)는 절제사가 교역문권(交易文券)을 상고해서 ‘시(市)’자 낙인을 하고 제포(諸浦)의 감고(監考)들은 ‘시(市)’자의 유무(有無)를 고찰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신이 바라는 바는 지금부터 전라도 경상도의 모든 연해(沿海)에 있는 역사(驛吏)들에게 ‘시(市)’자가 없는 마(馬)를 얻은 자는 관(官)에 고발하도록 하고 그 마주(馬主)는 통징(痛懲)하도록 하십시오.<sup>45)</sup>

‘시(市)’자가 없는 말을 관 사람은 물론 말을 사들인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市)자가 없는 말이 섬 밖으로 팔려 나가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필에는 모두 자호(自號)의 낙인(烙印)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목자들은 각각 자호(自號)로서 분양(分讓)받아 그 증식과 감소를 일일이 관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관아에서는 우마의 나이·털 색깔·관리하는 주인의 성명 등을 우마적에 기록하였으며, 우마적은 5통을 작성하여 목장의 감목관·제주목사·전라도 관찰사·사복시·병조에서 각각 한통씩을 관리 하였다.<sup>46)</sup>

44) 이영배, 「제주도 낙인 자형 조사」,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1992, 141쪽: 제주의 민간에서 사용되는 글자 중 천자문의 58자 이내의 것들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낙인들이다.

45) 『睿宗實錄』 卷3, 睿宗 元年 2月 29日: 濟州商人所買馬, 節制使考交易文券, 烙市字印, 諸浦監考, 考市字有無, 方許出陸。臣願自今, 全羅、慶尙道沿海諸驛吏, 得無市字馬者, 許令告官, 痛懲馬主, 仍以馬給告者, 則馬賊日減, 驛吏亦實矣。

46) 김동진, 「제주도 목장 관리와 공마」, 『제주도 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야외대 농업생명과학

우마적을 3년마다 개적케 하고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이를 점검케 한 것<sup>47)</sup>은 우마의 낙인을 3년마다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지영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두 살짜리 우마는 낙인이 없기 때문에 사둔의 우마와 섞이면 목자들의 농간이 있을까봐 우려했고 혹 3년이 되는 해에 흉년이 들면 낙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된다.<sup>48)</sup>

해마다 낙인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낙인이 없으면 목자들이 다른 낙인을 하여 개인 소유로 가져갈까 걱정되었고, 다른 하나는 3년이 되는 해에 흉년이 되면 점마에 인원을 동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점마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중 「산장구마(山場駒馬)」에는 산장<sup>49)</sup>의 말을 점검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 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는데, 사장(蛇場)과 원장(圓場)을 만드는 결책군(結柵軍) 2,602명, 말을 몰아오는 군인인 구마군(駒馬軍) 3,720명, 말의 생산을 직접 맡은 목자(牧子)와 목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보인(保人)이 214명으로 총 6,536명이 동원되었다. 점마(點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녹산장(鹿山場)·상장(上場)·침장(針場)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 목책(木柵)을 치고, 각 장의 말을 점검하기 위한 원장(圓場)과 사장(蛇場)을 설치하였다. 원장은 다시 미원장(尾圓場)과 두원장(頭圓場)으로 연결되며 그 사이에 사장(蛇場)을 만들어 1필씩 통과하게 하여 진상에 합당하면 두원장에서 취합하였다.<sup>50)</sup>

연구소, 2007, 119-120쪽: 정부는 각 목장의 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마적을 작성하였는데 우마적에는 우마의 나이, 털 색깔, 관리하는 주인의 성명들을 기록하였다. 우마적은 모두 5통이 작성되었고 목장 감독관·제주목사·진라도 관찰사·사복시·병조에서 각각 한 통씩 관리 하였다. 중앙 정부는 우마적만으로도 각 목장의 마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47) 『太宗實錄』 卷22, 太宗 8年 12月 25日.

48) 이익태 저, 『知瀛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7, 64쪽.

49) 김동전, 「조선시대 제주 목마장의 역사」, 『제주 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야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7, 111-112쪽: 산마장은 정의사람 김만일의 사둔장으로 선조 27년(1594) 전마 500필을 헌마하고, 광해군 10년(1618)에도 500필을 헌마하였으므로 오위도총부 총관직을 제수하였다. 효종 9년(1659)에는 그 아들 金大吉이 200필을 헌마 하였으므로 녹산장·상장·침장 일대를 산마장으로 하여 세습제 감독관으로 삼고 대대로 그 직을 이어가게 했다. 감독관의 임기는 6년으로 문중에서 병조에 천거하면 아뢰어 임명되었다. 산마장에서는 3년마다 式年貢馬로 200필을 진상하였다.

50) 남도영, 『濟州島 牧場史』, 마문화연구총서V,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340쪽.

조선시대 제주 목장은 소장을 다시 자장으로 나누어 관리 하였는데, 숙종28년(1702)의 『남환박물』에서는 15소 63자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환박물』에는 15소장 이외에도 우도장·황자장·우자장·양달장과 그 외에 우목장 등이 있었으므로 20여 소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 목사는 15소 63자장이라고 하였지만, 63자장에 대해서는 일부 57자장만을 밝히고 있다. 다음의 <표 3>은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에 나타난 소장과 자장, 그리고 9진에서 담당하였던 구역이다.

<표 3> 『남환박물』에 나타난 15소 63자장<sup>1)</sup>

읍별	소속	所	字牧場名	계
	소관부서(9진)			
제주목	별방소	제1소	天(천)·地(지)·玄(현)·黃(황)·宇(우)· 宙(주)·出(출)	7
		별목장	別天(별천)·別地(별지) <sup>51)</sup>	2
	조천소	제2소	洪(홍)·荒(황)·月(월)·盈(영)	4
	화북소	제2소	日(일)·昃(측)	2
		제2소	結(결)	1
	애월소	제3소	辰진·宿(숙)·致(치)·雨(우)·露(로)	4
		대3소	爲(위)·麗(려)	2
		명월소	제4소	張(장)·寒(한)·來(래)·暘(서)
	대1소		往(왕)·秋(추)·收수·冬(동)·藏(장)· 潤(윤)·霜(상)·金(금)·生(생)	9
	대정현	모슬소	玄(현)·黃(황)·宇(우)	3
차귀소		列(열)·別玄(별현)	2	
정의현	수산소	제1소	李(이)·奈(내)·芥(개)·薑(강)·海(해)· 河(하)·淡(담)	7
		제2소	鱗(인)·潛(잠)·羽(우)·翔(상)	4
		제3소	龍(용)·師(사)·火(화)	3
	서귀소	제1소	菜(채)·重(중)·鹹(함)	3
소계	(9)	12		57
				6 <sup>?)52)</sup>
총계	(9)	12		63

51) 남도영의 『제주도 목장사』, 298쪽:<표-3>의 제주목 별목장은 ‘天’과 ‘地’라 하였지만, 『남환박물』에서는 ‘別天’과 ‘別地’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고쳐 표시 하였다.

52) <표 3>에서는 63자장의 57자는 확인되고 있으나 그 외 6(?)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표-3에서 밝혀지지 않은 6자는, 이형상목사가 새로 설치한 황자장(黃字場)·우자장(宇字場)·양달장(揚達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사우마(私牛馬)의 낙인

낙인은 우마가 태어나서 이듬해인 2살 되는 해의 봄이나 가을에 하는데 봄보다는 가을에 많이 한다. 가을에 하는 낙인은 글자가 선명하고 상처가 잘 아물기 때문이다. 봄에는 청명을 전후하여 낙인을 하고 가을에는 10월의 자일(子日)·인일(寅日)·술일(戌日)에 한다. 낙인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호랑이 날인 무인일(戊寅日)을 꼽는다.

낙인하기에 가장 나쁜 날은 도침일(刀砧日)이라 하여 봄에는 해일(亥日)과 자일(子日), 여름에는 인일(寅日)과 묘일(卯日), 가을에는 사일(巳日)과 오일(午日), 겨울에는 신일(申日)과 유일(酉日)은 피했다.<sup>53)</sup>

낙인하는 날은 목장마다 목이 좁고 바닥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의 돌담이 높게 둘러 쳐진 곳에서 4인이 한조가 되어 말의 발을 묶고 낙인을 찍는데 이런 장소는 말을 가두었던 곳이라는 뜻으로 ‘장통밭’, ‘말통밭’이라 부른다.<sup>54)</sup> 말통밭의 모양은 다음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애월 거문오름 북쪽에 ‘말통밭’이라 부르는 곳은 주변보다 2m쯤 낮은 움푹 패인 밭들로 이뤄져 있다. 밭 둘레의 돌담굽은 잣성처럼 겹담으로 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만든 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호로병처럼 되어 있고 그 입구로 들어가면 직경 12m 정도의 넓은 원형으로 돌담이 쌓아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넓어지면서 직경 3m의 원을 이루고 마지막 입구는 겨우 말이 1-2마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좁아져서 말들이 다 들어간 후에는 돌덩이 몇 개만 옮겨도 입구를 막아 가두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밭을 ‘국마통’이라고도 하고 ‘말걸리는 밭’이라고도 한다.<sup>55)</sup>

민간에서 말통밭이라 부르는 곳은 조선시대 말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하던 원장(圓場)과 사장(蛇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원장과 사장은 짐마시 필요에 의해 나무로 설치하였지만 민간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돌담을 둘러 설치하여 두고 필요시에 이용하였다.

53) 이서(李曙) 저, 『馬經諺解』마문화자료집 I, 남도영 역,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8,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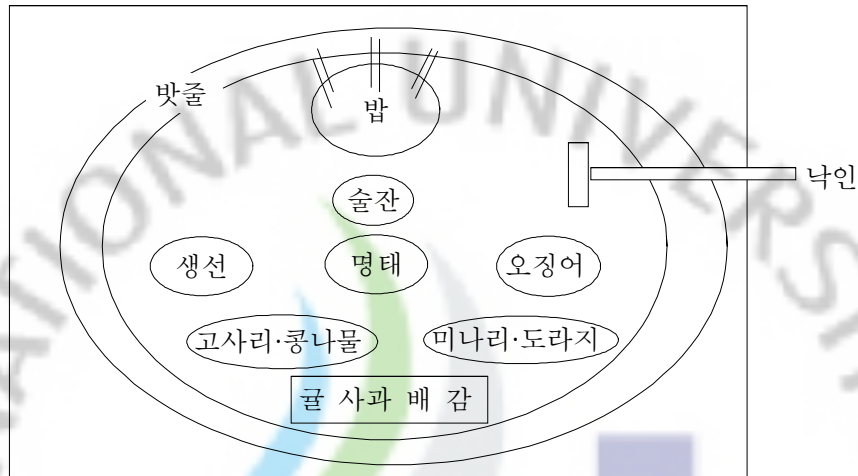
54) 장덕지, 『濟州馬 이야기』, 제주문화, 2007, 264쪽.

55) 고대경, 「말 가두었다는 ‘국마통’ 흔적」, 『목마장』, 제민일보 연재기사, 1990, 11월 30일.



### (1) 낙인코시

낙인을 하기 전에 목축신에게 낙인으로 인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비는 간단한 의례로 ‘코시’를 한다. 낙인코시의 제물은 돌래떡·조오메기떡·술·제숙(구운 생선)을 준비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산뎨 돌래떡’이나 ‘산뎨 시루떡’을 더 준비하기도 한다.



<그림 1> 낙인코시 상차림(봉개동): 고태구(남, 72세, 2009년 6월 2일 봉개동):마을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함.

낙인 하는 날 아침 일찍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전날 미리 낙인 할 우마를 몰아놓은 장소로 가서 돛자리를 깔고 우마를 붙잡을 밧줄을 동그랗게 돌려 제물과 같이 올리고 그 날 사용할 낙인도 같이 올린다. 음식을 올려 잠깐 기다렸다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 사방으로 던져 코시하며 그 날 낙인이 잘 되기를 빈다. 음복으로 술을 한잔씩 마시고 낙인을 시작한다.

낙인코시의 제물은 양푼데·제숙·명태·실과·감주·막걸리·채소를 올리는 데 채소는 두 종류를 한 그릇에 같이 담는다.

제차는 제상을 차려 놓고 5~10분 정도 기다렸다가 10~20m 떨어진 곳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 코시하고 음복한다. 일반적으로 목축의례에서는 절을 하지 않는데 가끔 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

### (2) 낙인 과정

낙인을 하기 전날 미리 낙인 할 우마를 일정한 장소로 몰아넣어 둔다. 낙인은 4인이 한 조가 되어 하는데 많은 우마에 낙인을 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이 필요하여 수눌음으로 하기도 하고 접원(接圓)끼리 서로 돕거나 둔(屯) 별로 모여서 한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사람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낙인을 굽고, 한 사람은 빗줄을 돌려 낙인 할 우마를 붙잡으면 나머지 두 사람이 놓혀 밭을 묶는다. 낙인을 하는 사람은 뜨거워진 낙인을 갖고 와 우마의 대퇴부에 찍는다.<sup>56)</sup>

낙인이 끝나면 뜨거운 낙인은 젖은 쇠똥에 찢러 넣어 식힌다. 그렇게 식혀야 낙인이 부식되지 않는다.<sup>57)</sup> 낙인을 할 때는 낙인 할 쇠를 적당히 불에 굽는 과정이 중요하며 낙인을 굽는 것을 ‘낙인 익힌다’라고 말한다. 낙인은 적당히 구워서 살짝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이 낙인을 뜨겁게 구워서 힘을 짝 주어 눌러 버리면 그 힘으로 가죽이 다 타 버려 상처가 심해져 우마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낙인은 너무 뜨겁게 달궈지면 말의 피부에 화상이 심했고, 너무 약했을 경우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낙인을 다시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낙인을 적당히 굽고 찍는 일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했다. 낙인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면 민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였다.

낙인을 너무 뜨겁게 구워 세게 눌러 생긴 상처에는 돼지기름을 발라 주면 상처를 감싸 주어 빨리 나았고, 낙인이 너무 약하여 희미할 경우에는 오줌 항에서 지난 해 오줌을 갖고 갔다가 오줌을 발라 주면 낙인 찍힌 자리에 털이 나지 않아 낙인이 또렷해졌다.<sup>58)</sup> 민간에서는 약물에 의한 과학적인 치료보다는 전통적으로 해 오던 손쉬운 민간 처방을 하고 있다.

### (3) 낙인의 크기와 모양

낙인의 유형은 쇠꼬챙이 끝에 두 글자를 새긴 것과 한 글자를 새긴 것, 또는 자음의 모양만을 나타낸 것이 있으며, 두 글자를 새긴 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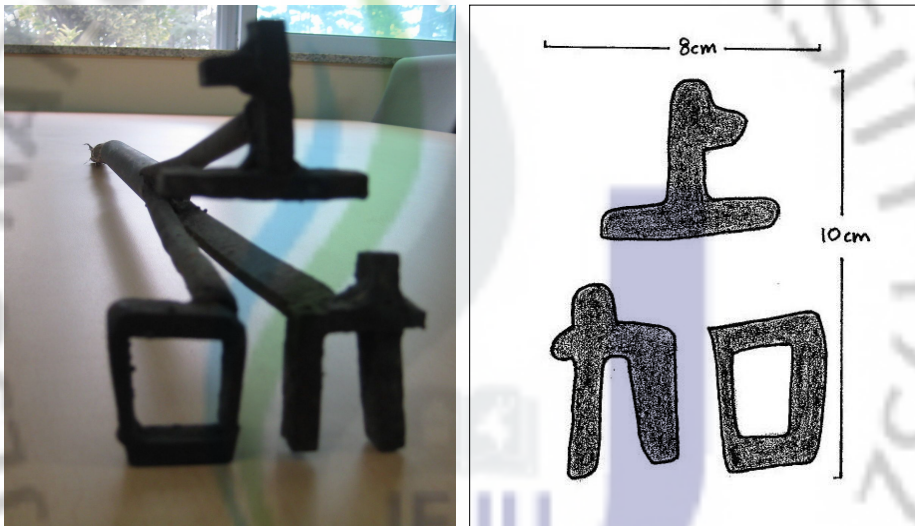
56) 장덕지, 『濟州馬 이야기』, 제주문화, 2007, 265쪽.

57) 강범주(남, 70세, 2009, 표선면 가시리)

58) 김성준(남, 76세, 2006, 표선면 세화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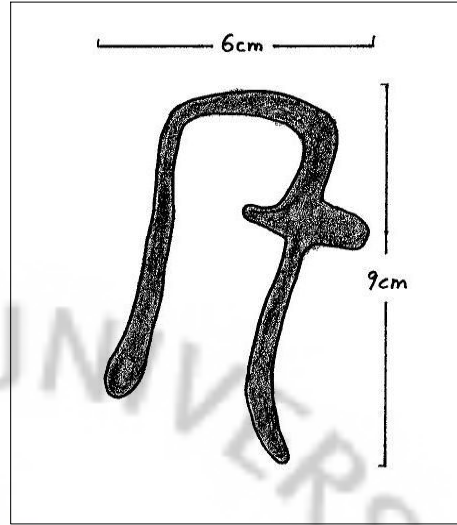
사용하는 것으로 마을 이름을 세기는 경우들이다. 한 글자의 낙인은 마을 내의 친족집단에서 고유의 글자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낙인의 글자는 획이 간명하면서도 표시 부분이 또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글자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획이 많고 복잡한 글자의 낙인은 어린 우마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상처 부위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우마의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식별이 어려워 피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마을의 공동 낙인은 ‘상가(上加)’ 글자를 사용하였다. 낙인의 크기는 가로 8cm, 세로 10cm이다.



<사진 4> 낙인 [上加] :상가리 마을에서 사용하였던 낙인.  
2009년 9월 10일,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축산연구소에서 촬영.

한 글자로 된 낙인 ‘범(凡)’은 그 크기가 가로 6cm, 세로 9cm이다.



<사진 5> 낙인 [凡] : 조천읍 함덕리 고씨 집안에서 사용하였던 낙인. 2009년 9월 10일, 농업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축산연구소에서 촬영.

과거 낙인은 각 집마다 소유하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마을명을 새긴 낙인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우마를 많이 소유한 집에서만 개인 낙인이 있었다. 낙인의 글자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었는데, 옛날에는 낙인 만드는 일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서 새로 낙인을 만들려면 관아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에야 낙인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한 마을 내에서 또는 가까운 이웃 마을 간에 같은 글자의 낙인을 사용했을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sup>59)</sup>

우마를 한두 마리 소유한 사람들은 개인 낙인을 소유하지 않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집의 낙인을 빌려다 사용하였다. 빌려 온 낙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글자를 바로 세워 찍지 않고 눕히거나 거꾸로 하여 글자 모양을 달리 하였다.<sup>60)</sup>

낙인 글자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하는 방법으로 읽었는데, 예를 들어 ㅸ(굽부리 오자) · 거(어문 거자) · ㄷ(어문 ㄷ자) · 乃(산내자) · B(도막은 산내자) · ⊖(마루이찌) · ㅎ(돌치기) · p(석섬) 이라 하였다. 제주도내 민간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낙인의 글자와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9) 홍상표(남, 61세, 2009, 표선면 성읍1리)

60) 강현준(남, 76세, 2007, 표선면 세화3리)

<표 4> 민간에서 사용하는 낙인 글자 61)

마을	낙인모양 및 읽는 방법
표선면 성읍리	조, 中(가운데 중: 흥칩), ㉿(노단돌레송곳: 동동네고칩), ㉽(원돌레송곳: 동동네조칩), ㉾(안터레 터진 돌레송곳), ㉺, 朴, ㉻(굽부리오: 성읍 닥남밭 강칩), 京(서울 경: 성읍 전주 이칩), 八, S, 主, 了, 乙(웃동네 강칩), 才(강칩), 甲, 生, ㉼(어문도:), 丁(곰배정)
표선면 성읍2리	正, 九, 조.
표선면 가시리	㉼, -㉽(머리돌레송곳: 경주김씨), ㉾(꼬리돌레송곳: 안칩), 生, 仁(오칩), 工(바치공:정칩), 井(우물정), 乃(산내:강칩)(B:도막은 산내),
표선면 토산리	산, 내, ㉾(마루이찌), 了
성산읍 고성리	巳, 土, 卜
성산읍 수산리	巳, 元, 七, 오
성산읍 신산리	于, 月
성산읍 온평리	字, 宇, 張
성산읍 신평리	上, 干, 石(석섬)
남원읍 신례1리	大, 八, 己, 卜
남원읍 하례1리	丁, 一, 上, 下
남원읍 신흥리	呂, 乃(산내), 大, ㉾(마루이찌), 山(퇴산)
남원읍 태흥1리	元, 金, 宋
남원읍 태흥3리	品, 七, 井, 田, 才, 百, 己, 乙
구좌읍 송당리	니, ㉼(언문㉼), ㉼, 八, 송
구좌읍 하도리	石, 曰(줄왈), 丁(곰배정), 又(언문우), 品(품품), ㄱ(기역), 乃(산내), 下, 上, 百, 巳

61) 마을 현지 조사에 의해 작성함.

<표 5> 민간의 낙인<sup>62)</sup>

마을	낙인모양
제주시 아라동	仁, 月, 千, 卜, 巨, 田, 又, 竹
제주시 오라동	ㅍ, ㅓ
제주시 해안동	니 生, 노
제주시 도평동	都, 平, 巳
애월읍 광령리	光 슴, 광, 정, 토,
애월읍 고성리	古, 古(동그라미로)
애월읍 금성리	금 성, 支
애월읍 어음리	乙, ㄱ, 万, 甲, 巨, 川, 丁
애월읍 봉성리	甲(첫째갑), 거, 중, ㅎ(돌치기)
애월읍 상가리	上 加, 正, 占
애월읍 납읍리	上, 品, 乙, 太, 가, 山, 丁, 3, 納, 呂, ㄷ(씩날 철)
애월읍 신엄리	白, 吉, 엄, 丈

민간에서 사용하는 낙인 글자나 가호들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서는 이런 글자들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水’는 물은 흐를수록 맑아져서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木’은 나무가 자라듯 잘 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土’는 흙과 같이 건강하라는 의미이며, ‘正’은 바르게, 즉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凹’는 성읍 1리의 오름 모양을 모방한 것이며, ‘上加’는 마을 이름을 나타낸 글자이다. ‘化’는 말뚝이 많아지는 변화를 기대하는 의미이고, ‘卜’은 점점 살이 찌라는 의미이다. ‘万’은 천군만마(千軍萬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다.<sup>63)</sup> 이 외에도 간단한 기호로 ㉠(돌치기), 안터레 돌레송곳, 원 돌레송곳, 노단 돌레송곳, 머리돌레송곳, 꼬리 돌레송곳 등을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였다(<표 4> 참조).

62) 이영배, 「제주도 낙인의 자형 조사」Ⅱ, 『조사연구보고서』 제 8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3, 13-18쪽 내용을 표로 작성하였음.

63) 장덕지, 『濟州馬 이야기』, 제주문화, 2007, 266쪽.

## 2. 귀표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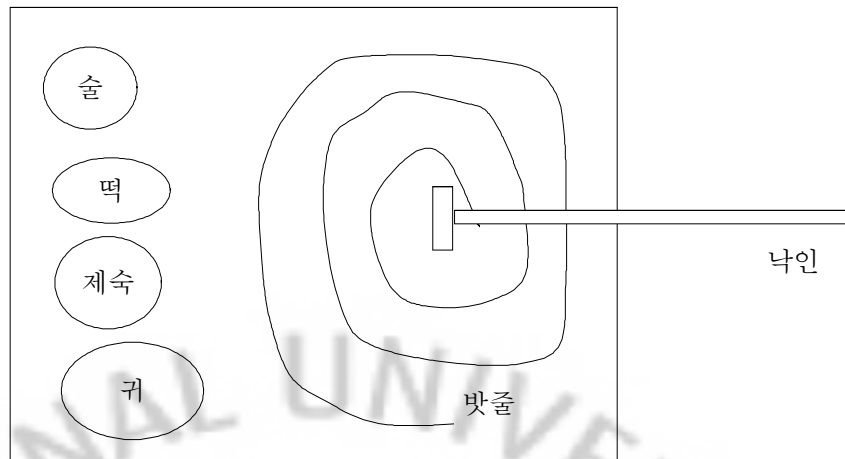
귀표는 방목하는 우마의 귀 끝을 조금 찌거나 잘라내어 소유를 분명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귀표’ 또는 ‘귀피’라고 하며 귀를 자를 때는 제사를 지내어 사고가 없길 비는데 이를 ‘귀표코시’라고 한다. 귀표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낙인을 여러 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낙인만으로는 우마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귀의 모양을 다르게 잘라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망아지의 귀 끝은 찌고, 송아지의 귀 끝은 조금 잘라 내어 표시한다.

우마의 귀표는 낙인과 같이 이뤄진다. 우마의 뒤통에 있는 사람이 낙인을 찍는 순간 앞쪽에 있는 사람은 칼로 귀표를 한다. 귀표에 사용하는 칼은 ‘장도’라고 부르는데 칼날이 10cm, 손잡이도 10cm 정도 되는 작은 칼이다. 과거 이런 칼이 없을 때는 호미(낫)로 귀표와 ‘코찌기’를 했다.<sup>64)</sup> 귀표를 하고 난 상처에는 흙을 발라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상처가 소독이 되고 상처 부위가 서로 달라붙지 않았다고 한다.

낙인과 귀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귀표로 인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빌고 우마가 번성하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귀표코시’ 또는 ‘방둥코시’라고 한다.<sup>65)</sup> 귀표코시의 상처림은 다음과 같다.

64) ‘코찌기’는 오래 전부터 전쟁이나 교통에 이용하는 말은 코를 1cm 쯤 위로 찌 주어 몸속의 열이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 병에 걸리지 않게 했다. 제주에서는 말이 짐마차를 끌었기 때문에 몸속의 열이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 코찌기를 했다. 일반적으로 마차를 끄는 말과 교통에 이용하는 말에는 코찌기를 하지만 방목하는 말에는 하지 않는다.

65) ‘방둥’이란, 낙인과 귀표가 끝나면 집에 가뒀던 우마들을 모두 풀어 놓아 ‘방둔(放屯)’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마을 내에서의 방둔은 가을 수확이 끝나기를 기다려 낙인과 귀표를 하고 나서 우마를 방목하는데 가을 수확이 늦은 말에는 우마가 들어가 농작물을 해쳐도 말주인은 항의를 할 수 없다. ‘이제부터 우마를 풀어 놓을 것이니 농작물에 우마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라는 의미가 있어 이를 ‘방둔 코시’라고 한다.



<그림 2> 귀표코시 상차림(가시리): 오국현(남, 76세, 2009년 9월 30일, 가시리) 마을 현지 조사에서 작성함.

낙인과 귀표가 끝난 후 귀표 할 때 잘라낸 귀조각을 구워서 접시에 올려 제사 지낸다. 제물은 송아지의 귀 구운 것·조오메기떡·좁쌀떡배기를 올리고 그 옆에 밧줄과 낙인도 같이 올린다. 절은 하지 않고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 앞 방향으로 던져 코시하고 입에 술을 물고 낙인을 들어 낙인에다 뿜어 준 다음 다시 술을 입에 물어 동쪽과 서쪽으로도 뿜어 주고는 음복으로 귀조각 구운 것을 나눠 먹는다.<sup>66)</sup>

귀표는 10월 상사일에 새곡식으로 산뎨돌레떡 허곡 조오메기떡 허영 '귀피왓'에 모여서 하는데, 한 살짜리 송아지에는 낙인찍고 귀 한 귀통이는 잘라 주메. 자른 건 구워서 '귀표코시'할 때 제물로도 올리주기. 그거 구우민 눈물방울만큼 밖에 안 허여. 경해도 그걸로 안주허민 맛 좋아서. 귀자른 거 접시에 넣고 제를 지내는데 절은 안허여. 제 지내고 나민 사방으로 캐우리메. 구경하는 아이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주곡 허는디 그거 구우민 손톱만이나 헤신가, 눈물방울만큼 했던 거 답아.<sup>67)</sup>

이렇게 송아지의 귀 한쪽 귀통이를 잘라낸 것을 구워서 접시에 놓고 제를 지내고 나서 나눠 먹었는데, 그걸 버리지 말고 꼭 먹어야 귀 자른 곳의 상처가 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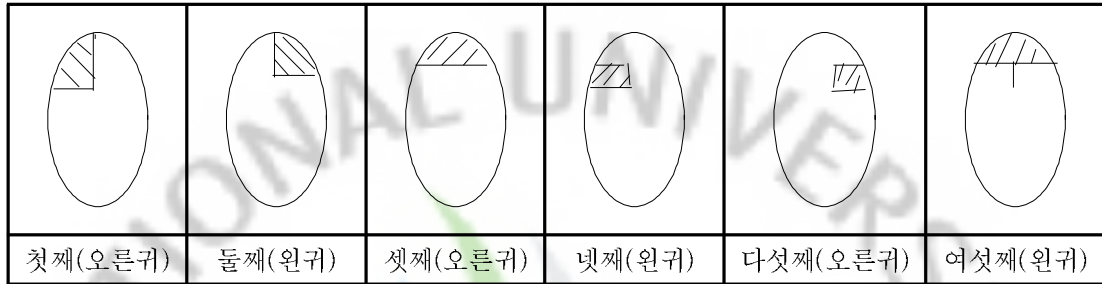
66) 오국현(남, 76세, 2009, 표선면 가시리)

67) 강두철(남, 72세, 2007, 성산읍 신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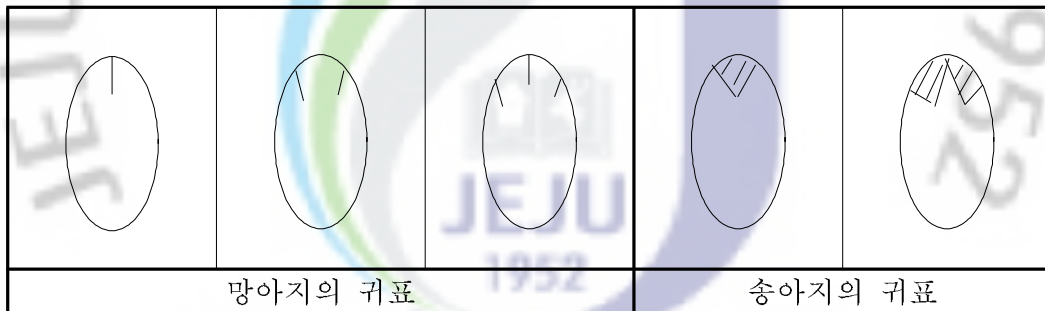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귀표의 모양은 집안에 따라 표시를 달리하였는데, 봉개동 고한구씨 댁에서는 6형제가 ‘원공쟁이 수(水)’자 낙인을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귀표 모양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고한구씨 6형제의 귀표모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송아지의 귀표모양(봉개동): 고한구(남, 72세, 2009년 6월 2일, 봉개동) 마을 현지 조사에 의해 작성함.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모양의 귀표들도 했다.



<그림 4> 망아지와 송아지의 귀표모양(가시리): 오국현(남, 76세, 2009년 9월 30일, 가시리) 마을 현지 조사에 의해 작성함.

송아지의 귀의 한 부분은 잘라내었으나 망아지는 귀를 찌는 방식으로 표시 하였다. 특히 교통에 이용하는 말에는 귀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귀를 찌면 움직일 때 너털거리 타고 다닐 때 모양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의 귀는 쫓긋한 모양을 살려야 보기가 좋다고 한다.

### 3. 밭볼리는 묘시

제주의 토질은 대부분이 화산회토로 되어 있어 가볍고 푸석거리기 때문에 좁씨를 뿌리고 나면 우마의 발이나 들태, 낭태<sup>68</sup>)로 흙의 표면을 단단하게 해 주는데 이를 ‘밭볼림’·‘밭볼리기’라고 한다. 밭볼리기는 소서 전후로 6일 내에 씨를 파종한 후 밟아 주는데 그보다 일찍 파종하면 조가 너무 자라고 너무 늦으면 이삭이 잘 여물지 않기 때문에 씨뿌리는 시기를 잘 맞춰야 하고 씨를 뿌린 후에는 표면을 단단히 밟아주는 일을 꼭 해야 한다. 제주에서의 밭볼리기는 이미 오래된 농사법으로 태종 11년 제주목사 김정준(金廷騫)은 밭볼리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는 토성(土性)이 푸석하고 들떠서 곡식을 파종하는 자는 반드시 말과 소를 모아 그 땅을 밟아서 땅이 반드시 단단하여진 뒤에 종자를 뿌리니 공사(公私)의 소와 말이 이 때문에 곤피(困疲)합니다.<sup>69</sup>

6월 짙 파종하는 좁씨는 씨앗을 뿌린 후 우마를 이용하여 땅을 밟아 주어야 씨가 발아가 잘되고 뿌리를 땅에 단단히 내리게 되는데, 이때 수 십 필의 말을 밭에 몰아 놓고 테우리가 말의 방향을 잡으며 줄을 맞춰 밟을 밟게 한다. 말들은 이미 길들여져 있어 그 움직임은 마치 군대가 사열하는 장면처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

‘밭볼림’을 할 때는 맨 앞에는 말떼의 우두머리가 되는 말을 앞에 세우고 테우리 또한 목소리가 우렁차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앞에서 선창자가 되어 소리를 하면서 선두에 선 말에게 방향을 잡도록 한다. 그러면 다른 말들은 자연히 그 뒤를 따르는데 선두 테우리 뒤에는 다른 테우리들이 노래의 후

68) 고평민, 『제주도의 생산 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98쪽: 조를 파종하고 난 밭의 길을 잘 밟아 골라 주어야만 한다. 마소의 발을 빌려 밟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나무나 돌을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를 마소의 발인 듯 굴리면서 그 일을 대신 하기도 한다. 나무로 만든 것을 낭태라 하고 돌로 만든 것을 들태라 한다.

69)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 7月 27日: 今觀土性虛浮 凡播穀者必聚馬牛 以踏其地 地必堅硬 然後播種 公私牛馬 因此困疲.

럼을 따라 하면서 말을 이끈다. 이 때 부르는 노래의 후렴은 무의미한 음이 계속되는 특이한 형태로, 발을 밟을 때 테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후렴구)

어려려려 어허허허잇 어려리어어엉어려어허어엉

어허어 허어어어 허허어형엉

어어어어하랴 하아아아랴 어허렐렐렐렐렐

어려려려어허어어 어허려어허이 어허어어 어허 어어어허렐렐렐<sup>70)</sup>

(사설부분)

월월 오늘은 이 밧디 이 몰달아 챗발 불리레 나간다는구나<sup>71)</sup>

발 밟을 때 부르는 노래는 후렴 부분은 길고 사설 부분이 짧은데, 그 형식은 후렴이 계속되는 사이사이에 간단한 사설만이 삽입되고 있다. 사설은 말에게 직접 대화하는 대화체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이 노래에서는 사설 부분이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노래의 대부분이 의음(擬音)으로 계속되고 있다. ‘밧블리는 소리’는 제주도의 마을마다 전해지고 있는 노래로 일부 지역에서는 후렴구만으로 노래가 불리는 경우도 있다. ‘밧블리는 소리’의 후렴구에 대해서 변성구는 ‘원시성을 띤 제주도에서만 전해지는 노래로 가락이 구성되고 느린 편으로 노래 전체가 무의미한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노래는 이후 전승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설이 삽입된 것<sup>72)</sup>이라 하여 무의미한 음이 반복되는 것을 원형으로 보았다.

제주의 ‘밧블리기’ 농법은 오래된 풍습으로 그에 따르는 노래 또한 원시성을 띄고 있을 만큼 오래된 노래이다. 이 노래에는 사설이 없지만 우마와 사람이 서로 교감을 나누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유형의 노래로는 ‘밧블리는 소리’ 외에도 ‘모쉬모는 소리’가 있으며, 모쉬모는 소리에서도 무의미한 음이 반복적으로 불리고 있어, 이런 유형의 노래들이 과거 마조제나 마제 때에 불렸던 ‘군마대

70) 변성구, 「제주민요의 후렴」, 『민요론집』 제2호, 민속원, 1993, 280쪽.

71) 제주시, 『향토민요』, 예술, 2000, 25쪽.

72) 변성구, 위의 글, 280쪽.

왕'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sup>73)</sup>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더 이상 거론할 수는 없다.

더운 여름날 종일 밭을 밟게 하는 것은 우마에게는 괴로운 노동이었다. 다음의 글은 밭볼리기가 우마들에게 얼마나 힘든 노동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 더운 때 망아지들 한참 커 가는 것들 계속 밭 볼르게 하민 망아지덜 힘들엉 막 줄고, 눈 부뜨는 망아지들 보른 테우리들 밥 흔적 먹은게 성드레 안갑니다. .... 테우리들이 술이나 먹는 사람들은 그 말때들 다 망하게 허여, 그 주인이 요령이 있어서 말들 숨도 좀 돌리게 해 줘야 살지 그냥 밭만 밟게 했다가는 말이 밭 밖으로 나와서 팍팍 쓰러져 죽는 수도 있어. 우리 집에서도 어둡도록 밭 밟은 말을 다시 사춘 누이네 말까지 밟게 하려고 했다가 말을 밟는다 쓰러져 버린거라. 이거 큰일났다고 하고 어머니도 “우리 자손 하나보다도 귀한 말이 죽었다”고 하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살아남. 뒷날은 오골오골 일어난 살아나십주.<sup>74)</sup>

테우리는 우마의 상태를 보아가며 적당히 쉬게 해 줘야 하는데 무리하게 밭을 밟게 했다가 우마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우마를 잘 살펴주어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은 바로 테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마의 주인은 제사 지낼 음식을 준비하여 테우리를 먼저 대접한다.

밭볼림을 할 때는 우마의 무사를 빌고 풍농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밭볼리는 코시’라고 한다.

그 해 첫 밭 밟는 날에 마주는 테우리들을 위하여 큰 암탉을 잡고 강술을 준비한 점심을 테우리들을 위해 밭으로 보낸다. 테우리들은 ‘밭볼리는 코시’를 지낸 다음 이웃 테우리들도 청하여 나누어 먹는다. 첫 밭 밟는 날 코시를 잘 지내야만 그 해 농사도 잘되고 여름 동안 우마에 탈이 없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sup>75)</sup>

73) 한국정신문화원, 「군마대왕」, 『민족문화대백과』 3권, 794쪽: 군마대왕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리러루 러 리러루 런러러루 러루 러러러루 러러루리 러리로 로리로라리 러러루 러러루 런러러루 러루 러러러루 러러루리’.

74) 제주도, 『제주의 民俗』Ⅱ, 해동인쇄사, 1994, 357-358쪽.

75) 진성기, 『제주도 민속』세시풍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224쪽.

‘맛볼리는 코시’는 테우리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리지만 의례의 내용으로 보면 테우리를 잘 대접하여 그날 우마를 잘 보살피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4. 당(윤남동산)의례

표선면 성읍2리의 마을에는 ‘윤남동산’이라 하여 잃어버린 우마를 찾게 도와주는 당신(堂神)이 있다. 과거 여기에 큰 윤노리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윤남동산이라 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영감이 이 당의 나무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현재 윤노리나무는 없다. 윤남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지나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비를 피하기 위해 이 언덕바위 밑에 몸을 웅크리고 비를 피하고 있다가 심심하여 지팡이로 흙을 짓이겼다. 그리고는 그 흙을 갖고 인형을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비는 그쳤고 그 사람은 그 곳을 떠나며 인형을 그 자리에 놓고 “너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 말발 절게 해서 얻어먹어라” 그 사람은 몇 년 후 그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말이 발을 절었다. 이상하게 여겨 인형을 찾았는데 그 곳에 인형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인형을 들고 “은공도 모르는 놈”하고는 부셔 버렸다. 그랬더니 그 인형의 몸속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말발이 절었고, 이 당 앞을 지날 때는 당신에게 돈을 바쳐야만 말이 무사했다.

윤남동산은 당신(堂神)의 영험성이 세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에는 목사(牧使)도 이 당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돈을 바치고는 걸어가야 했다. 먼 길을 갈 때 도시락을 들고 가는 사람들도 이 당 앞에서는 도시락을 열어 음식을 조금 던져 주고 지나가야지 만약 그대로 지나갔다가는 흉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sup>76)</sup>

윤남동산은 길가에 있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당에 들러 평안을 빌었고 조선시대 제주목사도 이 앞을 지날 때면 말에서 내려 돈을 바쳤다고 한다.

76) 현용준, 『제주도 전설』 개정판, 서문문고, 2002, 249-250쪽.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당 앞을 지날 때면 갖고 있는 음식을 조금 떼어 주고 가던가, 아니면 돈을 바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흉한 일을 당한다고 믿는다. 과거 이 길을 지날 때면 당신에게 갖고 있는 것 중 무엇이든지 당에 바쳐야만 무사히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우마를 찾아주는 당으로 목축하는 사람들만 찾아가고 있다. 방목하는 우마를 잃어버렸을 때 음식과 돈을 준비하여 윤남동산에 가서 빌면 당신(堂神)이 잃어버린 우마가 있는 곳을 알려 주어 쉽게 찾게 해 준다고 믿는다.

윤남동산에 가서 의례를 지내는 경우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목하는 우마를 농사나 교통에 임시 이용하고자 하여 찾으러 가는 경우 둘째, 우마가 방목지를 벗어나 잃어 버렸을 경우 셋째, 백중날의 당의례이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처럼 우마를 찾으러 방목지로 가면 우마를 찾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찾하고자 하여 당에 가서 빈다. 다음은 방목하는 우마를 데려다 임시 이용하고자 하여 당을 찾는 경우이다.

모쉬 찾으러 갈 때는 윤남동산에 미리 가서 빌고 가면 쉽게 찾도록 해주는데, 원래 방목하는 모쉬는 자기하고 100m 안에 있어도 못 찾게 되면 영 눈에 안 들어오는거라. 모쉬찾으러 갈 때는 미리 윤남동산에 제물 차려 가서 빌고 가면 모쉬가 꼭 눈앞에 나타 남 이서. 제물은 밥이나 허곡 제숙허곡, 술허곡 돈이나 거정 강 제지내매.<sup>77)</sup>

방목지에서 자신의 우마를 발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당에 와서 빌고 방목장으로 가면 우마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와는 달리 우마가 방목지를 벗어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애가 탄다. 며칠을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하여 애만 쓰는 일이 허다하다. 이럴 때는 윤남동산당에 제물을 준비하고 가서 빈다.

다음은 잃어버린 우마를 찾게 해 달라고 비는 의례이다.

제물은 쌀밥과 술, 생선 굽고 돈(10원이나 100원)을 갖고 간다. 윤남동산당은 상

77) 강태훈(남, 75세, 2007, 표선면 삼달리)

단(上壇)과 하단(下壇)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상단에 음식을 올리고 절을 세 번한 다음 다시 아랫단으로 음식을 내려놓고 절을 세 번 한다.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 옆에 있는 쪼에 넣고 돈은 돌트명(돈쪼)에 넣는다. 그리고 당에서 100보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디선가 까마귀가 날아 와 음식을 먹고는 날아가는데 그 까마귀를 따라 가면 잃어버린 우마를 찾을 수 있다.<sup>78)</sup>

위의 경우는 우마를 찾으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진드기로 인한 고통을 참아내고 있으며 까마귀가 오기를 기다리며 움직이지도 않았다.

백중날의 당의례는 성읍2리 마을 사람들이 백중제를 지내러 목장으로 가기 전에 이 당에 와서 의례를 지내는 경우로 이 마을 사람들은 백중날이면 백중제를 지내러 가기 전에 먼저 윤남동산에 와서 제를 지낸다. 백중의례 제물을 조금씩 따로 준비하여 해가 지면 바로 당으로 간다. 제물은 메1, 술잔1, 제숙1, 과일, 삶은 계란 3개, 돼지고기 적갈(산적)을 준비한다. 제물을 올리고 절을 두 번 한 다음 음식을 조금씩 떼어 코시 한다. 윤남동산에 올렸던 음식은 그 주변에 버리고 집으로 갖고 오지 않는다.<sup>79)</sup> 성읍2리에서는 다른 마을과 달리 백중제에 돼지고기를 올리며, 다른 당과 달리 윤남동산당에도 돼지고기를 올리고 있다.

현재 윤남동산당은 번영로의 확장공사로 인해 당은 거의 훼손되었고 흔적만 남아있다. 그래도 주변에 빈 술병들과 100원짜리 동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일대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남동산을 다녀온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윤남동산의 당신(堂神)은 잃어버린 우마를 찾게 해주는 한편 남자들만을 신앙민으로 갖고 있는 당신이기도 하다.

## 5. 백중의례

78) 김범주(남, 70세, 2009, 표선면 성읍1리)

79) 홍인남(남, 54세, 2007, 표선면 성읍2리)

## 1) 백중의 의미

우리나라 세시에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한다. 백중을 한자로는 ‘백중(百種)’ 또는 ‘백중(百中)’으로 쓴다. 민간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온갖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는 때이므로, 여러 가지 종자를 갖추었다 하여 이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이 음력 7월 15일에 아귀지옥에 빠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란분재(于蘭盆裁)’를 베풀었는데, 이 때 오미백과(五味百果)를 차렸으므로 이에 ‘우란분재’를 대신하는 말로 ‘백중’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우란분재가 성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의식을 행하였던 기록을 찾아 볼 수는 없고, 다만 『열양세시기』<sup>80)</sup>에 신라의 오랜 풍속에 왕녀(王女)가 육부(六部)의 여자들을 데리고 7월 16일부터 대궐의 뜰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는데 8월 보름에 그 공(功)이 많고 적음을 보아 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면서 서로 가무(歌舞)를 즐기고 온갖 놀이를 하다가 파했다. 그래서 길쌈이 시작되는 7월 보름을 ‘백중절’이라 하고 길쌈이 끝나는 팔월 보름을 ‘가배일(嘉俳日)’이라 하였다<sup>81)</sup>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음력 7월 보름이 되면 궁궐에서 우란분재를 베풀거나 왕이 공주와 함께 사찰을 찾아 선왕(先王)의 명복을 비는 우란분재를 베풀었으므로<sup>82)</sup> 사찰에서의 백중날 우란분재가 성행하였고, 도교에서는 중원절이라 하여 초제를 지냈으며, 민간에서는 망혼일이라 하여 죽은 부모를 위해 제사 지내었다. 고려시대 백중날은 불교식·도교식·무속식으로 각각 복을 비는 제사를 지내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하면서 신분에 맞지 않거나 유교식 이외의 제사를 음사로 규정하여 탄압하면서 백중날의 우란분재는 사찰 내의 행사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외의 백중날의 제사들은 점차 성격이 바뀌거나 사라져 갔다. 그러나 백중 용어는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던 세시 용어였으므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왕이 ‘백중’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태종 1년, 사찰에서의 백중행사가 지나치게 방대하다 하여 주지승을 처벌한 일에 대해 논란이 있

80) 『열양세시기』는 순조 때(1819년 경) 김매순이 서울의 궁중과 관청, 민간의 풍속을 적은 책이다. 여기에서 ‘열양’은 서울은 이르는 말이다.

81) 한국민속박물관, 『한국대세시기』Ⅲ, 세시기번역총서5, 143쪽.

82)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1년 7월 15일.



었고,<sup>83)</sup> 태종12년, “속담에 백중에는 큰 바람이 분다고 하였으니 배를 띄우지 말라”<sup>84)</sup>하였다. 조선 초기 궁궐에서 백중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백중’은 고려 시대부터 민간에서는 널리 사용하던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전의 기록에는 백중 용어만 보이다가, 18세기 『한양세시기』에서 처음 ‘백중’이 등장하였다.<sup>85)</sup> 이 두 용어는 민간에서는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백중만이 기록되어졌고, 지금은 백중보다는 백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2) 제주 백중제의 기원과 유래

제주에서는 음력 7월 14일을 백중날이라 하여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날 밤에 목장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며 우마의 무사와 번성을 기원하는데, 이를 ‘백중제’라 한다.

백중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세시이지만 백중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에서는 백중의 기원을 알려주는 민간전설이 있다. 제주에 구전되는 전설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따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의 동부지역은 농사보다는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 곳에 전해지는 백중 전설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백중이 들판에서 마소를 돌보고 있었다. 그날 비바람이 치자 다른 테우리들은 무섭다며 모두 마을로 와 버렸다. 그러나 백중만은 끝까지 목장에서 마소지켰고 덕분에 마소가 모두 무사했다. 후일 백중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백중이 우마를 잘 돌봐 주었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백중의 제사를 지내주게 되었다.<sup>86)</sup>

위의 전설에서 백중은 사람의 이름이고 직업은 테우리이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다. 살아생전 우마를 잘 돌보았기 때문에 죽은 후 사람들이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동부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이

83)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12월 17일: 命議政府移文慶尙道按廉使, 按知陝州事尹穆罪. 初, 陝州夢溪寺僧, 設百種法席極備. 穆聞之, 遣人擊撤之, 取其寺所儲穀三百餘石, 以補雜貢之乏, 餘給鄉校.

84) 『太宗實錄』, 卷24, 太宗12년 7월 17일: 百種有大風, 今後嚴立法程, 七月內, 公私船, 毋得泛海.

85)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 세시기번역총서1, 2003, 173쪽: 7월 보름을 세속에서는 ‘백중’이라 한다(七月之望 俗呼百中)

86) 김규석(남, 72세, 2007, 표선면 성읍1리)

면서도 내용에서는 차이가 난다.

말테우리 백종이가 있었는데 들판에 자라는 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백종은 방목지의 풀 백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서 항상 좋은 풀을 골라 말들에게 먹였으며 좋은 풀을 먹고 자란 말들은 건강했다. 이렇게 말을 잘 돌보아 좋은 말을 많이 번식 시켜 주었으나 백종에게는 후손이 없었다. 그래서 백종이 죽고 난 후 제사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주(馬主)가 테우리 백종을 위해 음력 7월 14일 밤에 목장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sup>87)</sup>

위의 전설에서는 테우리의 이름이 백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백종의 업적은 풀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갖고 있어 우마를 잘 키워 주인에게 풍요를 갖다 주었다. 백종이 죽은 후 후사가 없어 주인이 제사 지내게 되었다. 이 전설에서도 백종은 우마를 돌보는 테우리이며 우마를 잘 키웠다. 주인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은 후손이 없는 무사귀신이기 때문이다.

위의 두 전설이 동부 지역의 전설인 반면 다음의 전설은 서부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이다. 서부 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농토가 넓고 비옥하여 목축보다는 농경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도 동부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옛날 차귀 벵뒤에 백종이라는 테우리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바닷가에서 마소를 먹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왔다. 그리고는 바닷속의 거북이를 불러 “거북아 오늘밤은 석자 다섯치의 비가 내리게 하고 풍우대작하게 하여라” 라고 명을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본 백종은 ‘오늘 비바람이 치면 모든 가축과 곡식에 피해가 클 거라는 걸 알고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거북이를 불렀다 그리고는 “거북아, 아까는 말을 잘못했는데, 오늘밤 비는 다섯 치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여라” 하니, 이에 거북이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백종의 말대로 비는 다섯 치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를 본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차사를 보내 백종을 잡아들이게 했

87) 제주도, 『제주도 제주마』, 시민당인쇄사, 2000, 326쪽: 이 책에서는 ‘백종’ 용어를 사용하였고,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1996, p436쪽에서도 ‘백종날’이라 하여 ‘백종’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백종’과 ‘백중’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를 안 백중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백중 덕분에 그 해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백중의 은혜에 감사하며 백중이 죽은 날에 백중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sup>88)</sup>

위의 전설에서 백중은 테우리지만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자신을 희생하여 풍농을 가져다주었다. 백중제는 풍농에 대한 고마움으로 백중의 은혜에 보답하는 제사이다. 이는 동부 지역의 전설에 비해 그 내용에서 목축보다는 농경을 중요시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위의 전설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백중전설 분석

지역	공덕(功德)	제사 지내는 이유
동부지역 전설-①	위험에서 우마를 지킨 테우리	공덕에 대한 보답
동부지역 전설-②	우마를 건강하게 키운 테우리	무사귀신에 대한 제사
서부지역 전설-③	폭풍을 막아 풍농이 되게 한 테우리	풍농에 대한 보답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백중은 테우리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공덕을 쌓았다. 그러나 죽은 후에 제사 지내 줄 후손이 없어서 마주와 테우리들이 제사 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백중제는 ‘공덕(공덕)에 대한 보답’<sup>89)</sup>과 ‘무사귀신(無祀鬼神)에 대한 제사’<sup>90)</sup>로 요약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조선시대 제사의 대상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백중전설을 통해 볼 때 백중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백중전설과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조건을 비교해 볼 때 백중전설이 먼저인지, 국가 제사의 규정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88) 진성기,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250쪽.

89) 정도전, 『三峰集』 券7, 諸神祀典: 무릇 사전에 실린 것은 백성에 공덕이 있어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凡載祀典者 皆有功德於民); 이육 「불교 기양의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종교학과 박사논문, 1999, 57쪽.

90) 유교사회에서 제사 드러줄 후손이 없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원혼들은 和氣를 손상시켜 재난과 질병을 부른다고 믿었다: 위의 논문 219쪽.

의 연구가 더 있었으면 한다.

### 3) 의례와 제차

#### (1) 의례 날짜와 장소

제주는 본토와는 달리 음력 7월 14일을 백중날이라 하며 이 날은 ‘백중제’를 지내고 ‘백중 물맞기’를 한다.

‘백중 물맞기’는 여름철 농사일을 끝내고 해변이나 계곡을 찾아 물을 맞으며 노동에 굳어진 근육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부녀자들은 솥과 양식을 갖고 계곡으로 가서 며칠씩 휴식을 취하며 물맞기를 하여 굳어진 근육을 풀어준다.

‘백중제’는 우마의 무사와 번성을 비는 목축의례로 백중날 밤 자시에 남자들만 목장으로 가서 지낸다. 목장 내에서는 주변에 무덤이 없고 잔디가 고운 동산이나 목장 내의 바령팻<sup>91)</sup>, 또는 우마를 돌보는 망동산에서 백중제를 지낸다. 백중제는 일정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각자 제물을 준비하고 제상도 각자 차려 지내는 개별의례이다.

#### (2) 제물

백중의례 제물은 메, 제숙(말린 생선 구운 것), 수탉, 채소, 과일, 상애떡(밀가루를 부풀려 만든 빵), 술, 음료수를 올린다. 제물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닭 대신 계란을 올리기도 한다. 메 위에는 숟가락 대신 새(띠)를 꺾어 젓가락처럼 꽂는데, 일반적으로 세 개(세 쌍)를 꽂는다. 제숙은 말린 생선을 구운 것을 말하며, 생선의 머리와 꼬리가 온전히 갖춰진 것을 올린다. 닭은 털과 내장만을 제거한 후 머리와 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올린다. 채소는 나물을 말하며 콩나물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양하무침이나 미나리무침으로 한가지를 더 올린다. 채소를 ‘탕쉬’라고도 한다. 과일은 계절에 맞는 수박이나 포도·귤 등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 사과나 배를 올리기도 한다. 50여 년 전에는 과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제상에 과일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상애떡은 하얀 밀가루 빵을 말하며 백중제에 올리는 상애떡은 속에 팥을 넣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술

91) 고희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00쪽.

은 소주를 올린다. 1950년 이전에는 감주나 골감주<sup>92)</sup> 또는 청주를 올렸다. 요즘에는 골감주나 감주 대신 주스나 요구르트를 올린다.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 시루



<사진 6> 백중제(송당리):2009년 9월 4일, 아부오름  
백중제 현장에서 촬영.

떡을 올리기도 하며 성읍리의 경우는 다른 마을과 달리 돼지고기 적갈(산적)을 올리고 있다. 백중제의 제상에는 음식 외에도 말고빼나 짚신·테우리 수건·테우리 지팡이·도롱이(우장:雨裝) 등을 올려 제사 지내기도 한다.<sup>93)</sup>

### (3) 제차

백중제는 7월 14일 밤 자시에 목장에서 지낸다. 백중제는 자신의 우마가 있는 곳에서 지내므로 공동목장일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지내고, 개인 목장일 경우는 혼자서 지낸다. 다음은 송당리 아부오름 공동목장에서의 백중의례의 제차이다.<sup>94)</sup>

92) 감주란, 식혜와 비슷한 음식으로 쌀밥 대신 좁쌀밥에 엿기름을 넣어 삭힌 음료로 감주는 건더기를 걸러낸 후 끓여서 단맛을 강하게 한 것이고, 골감주는 건더기를 걸러내지 않고 끓이지도 않은 것으로 그냥 먹을 수 없는 음료이다. 골감주는 달리 '생감주'라고도 한다.

93) 오성찬 외, 『봉개동』 제주의 마을⑦, 반석, 2002, 107쪽.

94) 백중제의 제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9월 4일(음력 7월 14일)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에서 지내는 백중제에 참석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 ① 저녁 8시 쯤 준비한 제물을 차에 싣고 부부가 같이 아부오름 입구 표석 있는 곳에 모인다. 네 가구가 모여 같이 백중제를 지낸다.
- ② 제물을 넣은 바구니를 들고 입구에서 100m쯤 떨어진 ‘잔디가 고운 동산’으로 올라가 돛자리를 깔고 제물을 차린다.(그 장소는 부모님이 백중제를 지내던 곳이다.) 백중제를 축사 가까이에서 지내면 더 좋을 듯 하지만 축사 가까이 오래된 무덤이 있어 깨끗하지 못하므로(부정 하므로) 무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와서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sup>95)</sup>
- ③ 제물을 진설할 때 양푼메 위에는 숟가락을 하나 꽂고, 상애떡 위에는 향을 피워 꽂는다.
- ④ 소주를 술잔에 따라 올리고 10여m 옆으로 떨어져 앉아 기다린다.
- ⑤ 30분 정도를 앉아 기다렸다 제상 앞으로 가서 꿇어 앉아 올린 음식들을 조금씩 떼어 술잔에 넣어 제상 앞쪽으로 캐우린다. 이 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빈다.
- ⑥ 술병을 들고 입에 술을 부어 넣어 사방으로 뿜어 주기를 세 번 반복 한다.
- ⑦ 절은 하지 않는다.<sup>96)</sup> 백중은 신분이 낮은 테우리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⑧ 올린 음식을 옆으로 옮겨 다 같이 모여 음복한다. 음복하면서 목장에 관한 희의를 한다.

의례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비교적 간단히 끝났다. 음복하는 시간 또한 그 날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sup>97)</sup>

#### (4) 축문

##### (가) 비넴<sup>98)</sup>

95) 김선중(남, 71세, 2009, 구좌읍 송당리)

9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38, 「全州重祭保安縣馬浦大王文」: 내가 다스리는 完山은 한 지방의 중심이며 馬浦는 完山에 속한 곳이다. 長官의 관리로써 下邑의 神에 대하여 절을 하지 않고 揖만하는 것은 禮에 마땅한 것이다: 李煜 「佛敎 祈儀禮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종교학과 박사논문, 20-21쪽 재인용.

97) 2007년과 2009년의 아부오름 백중제에 참석하였다. 2007년은 날씨가 좋았으므로 백중제를 끝내고 나서 목장에서 밤새도록 놀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2009년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어 추웠으므로 제사를 간단히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98)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44쪽: “무속에서 비넴은 심방 한사람이 요량만을 흔들면서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간단한 의례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의 ‘비넴’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비념이란, 개인이 기원하는 바를 신에게 마음속으로 알리는 형식을 말한다. 민간에서는 비념을 달리 ‘축언’ 또는 ‘비손’이라고도 한다.

백중제에서는 따로 축문을 읽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덕수리』민속지에서는 ‘개별적인 의례이므로 축문을 쓰기도 어렵고 어두운 밤에 들에서 지내는 의례이므로 축문을 읽기도 어려워 축문을 고하는 일은 없다’<sup>99)</sup>하였고, 『두레』에서는 ‘제주 백중제의 특색은 제문(祭文) 대신 구두(口頭)로 우마의 번성을 축원한다’<sup>100)</sup>고 하였다.

백중제는 개별의례로 지내므로 의례에서 축을 따로 고하지 않고 각자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는 비념으로 대신 한다. 백중의례 비념의 내용들은 <표 7>과 같다.

<표 7> 비념(소원) 사례

축의 종류	내용	대상신	제보자
비념-1	00네 집에서 왔습니다. 00산신 도와줍서, 우리 우마들은 어는 지경의 물을 먹고 있는데 잘 거느려 잘 크게 해주 시고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산신	강태춘 (남, 75세, 2007, 삼달리)
비념-2	천황테우리도 도와줍서, 지황테우리도 도와줍서, 인황테우리도 도와줍서	천황테우리신, 지황테우리신, 인황테우리신	김성준 (남, 76세, 2007, 수산리)
비념-3	칠성할망도 도와줍서, 조왕도 도와줍서	칠성할망, 조왕할망	강석주 (남, 70세, 2007, 송당리)

위의 표는 일부 몇 사람에게서 수집된 비념이다. 비념에서 보듯이 소원을 빌고 있는 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평소 자신을 도와준다고 믿는 신이나 또는 우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다. 기원의 대상신으로 볼 때 백중제는 백중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지 않고 있다. 기원의 대상신은 평소 높은 계열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천왕신과 집안에 있다고 믿는 칠성신·조왕신, 그 외에도 방목하는 우마를 보호해 주는 산신이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몇 사람에게서 얻은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

99) 국립민속박물관, 『덕수리』민속지, 신광씨림, 2007, 202쪽.

100) 주장현, 『한국의 두레』 1, 집문당, 1997, 186쪽.

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만 목축을 관장하는 신에 대해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 말명<sup>101)</sup>

구두(口頭)로 신을 불러 모아 대접하는 것을 말명이라 한다. 과거 일정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백중제를 지낼 때면 목장의 책임자가 제관이 되어 백중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 날 제관이 된 사람은 제사를 끝내기 전에 말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황 테우리, 지황 테우리, 인황 테우리, 궁대오름에 놀던 테우리영, 폭남못에 놀던 테우리영, 한못에 놀던 테우리영, 낭것오름놀던 테우리영, 뒤굽으니 놀던 테우리영, 돌리미에 놀던 테우리영, 짓남못에 놀던 테우리영, 췌남못에 놀던 테우리영, 고겨 못에 놀던 테우리영, 다털 왕 먹영 가라. 떡당 남은 건 약돌기에 담양 강 못 온 테우리덜 적시도 니네덜이 일양 갈라주라.<sup>102)</sup>

말명에서는 축문과 같이 제사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백중제는 테우리 신들을 청하여 대접하는 의례이다. 말명에서는 그 마을의 방목지를 열거하며 우마를 돌보는 테우리신들을 불러 모아 음식을 청하고 우마를 보살피 주는 고마움을 말한다. 그리고 못 온 테우리신들을 위해 음식을 챙겨가도록 한다.

말명에서 제관과 백중은 인간과 신의 관계이지만 백중신이 신분이 낮은 테우리이기 때문에 제관은 신에게 명령조의 반말을 한다. 이는 마주가 제관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테우리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우리가 제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백중신에게 존댓말로 말명을 한다.

말명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의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지명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

10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386쪽: ‘말명이란 구전되고 있는 무가(巫歌)와 축문(祝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백중제 때 제관이 신에게 알리는 말을 의미한다.

102) 고태순(남, 78세, 2007, 성산읍 수산1리)·강봉협(남, 76세, 2007, 성산읍 수산1리): 제보자는 50여 년 전 마을 공동목장에서 백중제에서 여러 차례 제관이 되어 직접 말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억이 희미하다 하여 두 분을 같이 모셔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었다. 말명에서는 그 마을의 방목지는 물론 한라산 일대의 방목지들을 열거하며 우마들이 다니는 곳에 대한 지명을 자연스럽게 듣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특히 오름과 하천의 이름들이 말명에서 자주 거론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 영향으로 제주의 많은 지명들이 지금까지도 정확히 전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말명은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산대천 등이 거론되면서 유명 산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축문

의례에서 인간이 신에게 기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을 축문이라 한다.<sup>103)</sup> 백중제는 축문을 읽지 않는 의례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몇몇 경우에는 축문을 준비하여 백중제를 지내고 있다. 최근 마을 공동목장에서 낮 시간에 백중제를 지내면서 축문을 준비하여 읽고 있다. 공동의례에서의 백중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百中日에 牛馬에 對한 祝文

維歲次 ○년○월 朔日 干支 獻官 某

敢昭告于

鰓淹故 或野牧牛馬而 顛跌 或自刃 或自縊 或火燒水溺 或行遠商而 誤陷 或진0産難易夭折 或病風狂而 誤斃 或飲毒菜而 誤絕 或傷於歐鬪 或辱於風雪 凡諸般 禍故欲 數難悉祭祀不及 孤魂無托 查 結未散 或有外國非命之魂 橫厄之鬼 嘯風啼雨 於海航而 遠到者 或作妖孽 日吉辰良 敢薦菲 薄 携朋契來 亨飲食 俾我一洞 以康以樂.<sup>104)</sup>

감히 축을 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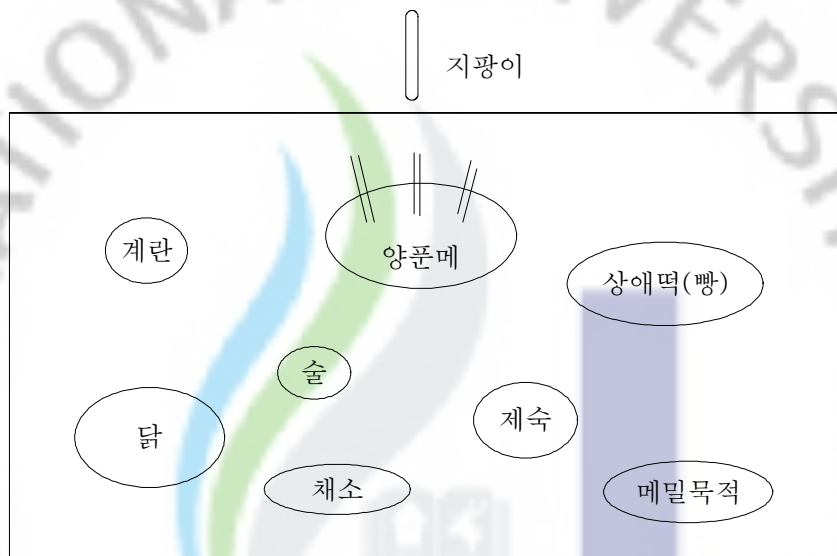
들에 키우는 우마가 혹 걸어다니다 넘어져 다치지 않게 해 주시고, 목 졸리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멀리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잘못되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임신을 해서 유산되지 않게 해 주시고, 병이

103) 표인주, 『공동체 신앙과 당신앙 연구』, 집문당, 1996, 65쪽: 공동체 신앙에서 제물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으면 제를 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만큼 축문은 중요하다. 인간이 神格에게 의례를 행하는 것은 삶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례를 통해 인간과 신적인 존재 사이에 感應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다. 神이 감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제물을 올리고 언어로서 신에게 인간이 希求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술하는데 이 그 내용을 축문이라 하며 인간이 신에게 제사지내며 기원하고 바라는 바가 그 말 속에 모두 들어 있다.

104) 高仁培 記, 『祝文集』, 1986, 59쪽: 제주 민간의 무속식 의례에 사용되는 축문 120여개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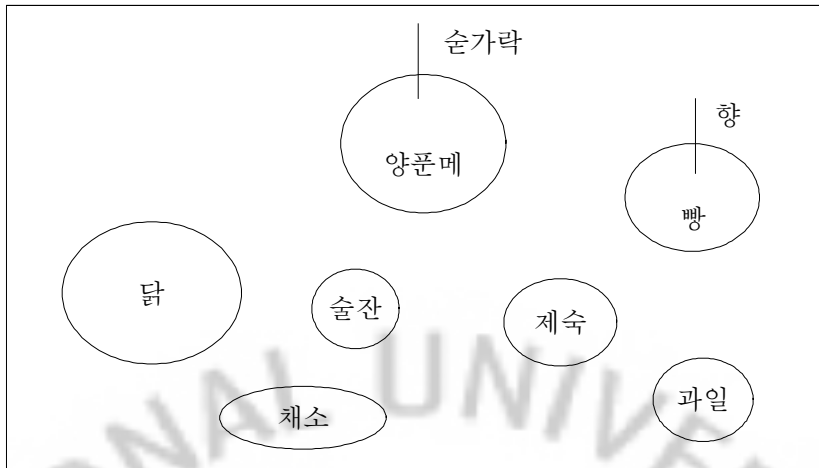
나지 않게 해 주시고, 잘못되어 죽지 않게 해 주시고, 먹은 음식이 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싸워서 다치지 않게 해 주시고 바람과 눈에 의해 욱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쪼 임자들이 하나가 되어 음식을 드리니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시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위의 축문에서는 방목하는 우마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막고자 기원하고 있다. 백중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축문이 아닌 비념으로 소원을 빌고 있으며, 위의 축문이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sup>105)</sup>



<그림 5> 백중제 상차림(성읍1리): 김규석(남, 72세, 2007, 성읍1리) 마을 현지 조사에 의해 작성 함.

105) 백중제의 축문은 이 외에도 하도리와 수산리에서 수집되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이 모두 달랐다. 그러므로 백중제의 축문은 필요할 때 만들어 읽는 조축(造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백중제 상차림(송당리):2009년 9월 4일(음력 7월 14일), 아부오름 백중제에 참가하여 작성함.

#### 4) 백중의례 성격

본토의 백중과 제주의백중은 의례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본토의 백중은 농신제일인데 비해 제주는 목축제일이다. 백중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제시이며 본토에서는 백중날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들을 하는 반면 제주에서는 백중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우마 번성을 기원하며 백중제를 지낸다.

백중제는 무속식 의례이다. 갹(국)은 올리지 않으며 메 위에는 순가락 대신 새(띠)를 꽂는다. 이는 무속의례에서 제물을 올리는 방식이다.<sup>106)</sup> 의례에서는 술을 입에 물고 사방으로 뿜어 잡귀를 쫓는데, 일반 당굿에서도 잡귀를 쫓기 위해 술을 뿜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무속에서 술은 잡귀를 쫓고 사방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sup>107)</sup>

남자들만 참석하는 의례이다. 백중제는 남자들만이 참석하는 의례로 알려져 있다. 예외로 송당리에서는 부부가 같이 백중제를 지낸다.<sup>108)</sup>

10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44-246쪽: 무속의례에서는 순가락을 쓰지 않고 향가지를 깨어 젓가락 대신 메 위에 꽂아 의례를 행한다. 갹을 올리지 않고 순가락을 쓰지 않는 점, 이 두 가지 특징만으로도 무속의례에서 연원한 것이라 생각된다.

107)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88쪽: 술은 신을 즐겁게 하는 제물로 술을 자신에게 바칠 때는 땅에 끼얹으며 하느님이나 산신에게 바칠 때는 공중으로 뿜어서 보내기도 한다. 또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술을 끼얹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술의 주술령에 의해서 逐魔하는 것이다.

108) 표선, 남원, 성산 일대의 모든 마을에서는 남자들만이 백중제에 참석하고 있는데 비해 구좌읍 송당리에

개별의례로 행해진다. 백중제는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각자 제상을 차리며 소원도 혼자서 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분을 내세워 행하는 의례이다. 백중제에서는 제관이 마주나 둔주일 경우는 백중신에게 반말로 말명을 하고 테우리가 제관이 되는 경우에는 존댓말로 말명을 해야 한다.

축문이 없이 구전되는 비념이나 말명을 한다. 백중제에는 문자로 쓰여진 축문은 없고 마음 속으로 각자 소원을 빈다. 백중제 축문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절을 하지 않는 의례이다. 백중신은 신분이 낮은 테우리신이라 하여 백중제에서는 절을 하지 않는다.

## 6. 백중마불림의례

### 1) 마불림의 의미

마을의 당에서 백중 시기에 지내는 의례를 ‘백중마불림제’라고 한다. ‘마불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어에서는 장마, 곰팡이, 말(馬) 등을 ‘마’라고 하기 때문이다.

‘마’를 곰팡이로, ‘불림’은 날려 없앴으로 풀이하면 ‘마불림’이란 ‘곰팡이를 날려 보낸다’는 뜻이 된다. 진성기는 마불림제를 ‘장마가 끝난 뒤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를 씻으려는 당신(堂神)의 청소제’라 하였으며, 이 제의는 ‘장마풀림’, 곧 장마가 개기를 시도하여 조를 중심으로 한 잡곡의 성장을 비는 천후조절의 제사<sup>109)</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불림’을 ‘장마 그침’으로 풀이하면 마불림제는 장마가 걷히기를 비는 의례라 할 수 있다. 마불림에 대해 현용준은, 제주도에서는 조를 파종하고 나서 당분간 비가 오지 않아야 모종의 발아가 좋고 성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가 오

---

서는 부부가 같이 참석하여 제사를 지낸다.

109) 진성기, 『제주도 무속학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4, 108-200쪽.

지 않기를 바라는데 마블림제는 농사의 풍등을 비는 한편 일기조절의 의미가 있었던 곳<sup>110)</sup>으로 보았다.

제주에서의 마블림제는 일기조절의 의미가 있는 제의로, 장마 그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장마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것은 조를 파종하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아야 조가 발아하여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마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祈請祭)’는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포함되어 국중(國中)과 주현(州縣)에서 치제되었다. 기청제를 넓은 의미로 ‘영제(靈祭)’라 하였는데 영제는 기우제와는 반대되는 의미의 제사로, 국중이나 주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며 지냈다. 영제에 대한 치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태종 5년으로 당시 영제의 치제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예방하기 위해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근년에 계속해서 수재와 한재가 있었는데 동북면과 풍해도가 더욱 심하니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미리 빌어야 한다.<sup>111)</sup>

태종시기 영제는 수재와 한재를 예방하기 위해 치제 되었고, 세종시기까지도 고려시대의 치제 방법에 의하여 치제 되었다.

고려의 『고금상정례』<sup>112)</sup>에 의하면 ‘무릇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서울 여러 문에 영제를 올리되 각 문마다 3일 동안 매일하고, 한 번 영제를 지내도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이어 산천·악진해독(嶽津海瀆)에 3일 동안 기도하며,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과 종묘에 기도한다. 주현에서는 성문(城門)에서 영제를 지내고 경내의 산천에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화곡(禾穀)을 손상 시켰으니 국문(國門)과 주군(州郡)에 장맛비가 너무 많은 곳에 영제를 지내게 하소서.<sup>113)</sup>

110) 현용준, 『濟州道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497쪽.

111)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 12월 17일.

112) 이규보, 『新序詳定禮文跋尾』: 『古今詳定禮』는 고려 인종 조에 최윤의 등 17인이 禮에 관한 내용을 50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 초기 고려사 편찬 시에 禮志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이범직, 「조선 초기 오례 연구」, 서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5쪽.

113) 『世宗實錄』 卷12, 世宗 3년 6월 14일.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시대 기청제는 비가 계속해서 내릴 때에 지내는 제사로, 국중에서는 국문에서 3일 치제 후 비가 그치지 않으면 산천·악진해독에 3일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과 종묘에서 제사 지냈다. 주현에서는 성문에서 3일 치제 후 비가 그치지 않으면 관내 산천과 사직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최종성은 「한국 기청제 연구」에서 ‘고려시대의 영제는 천상제로 치제되었고 이는 조선 전기까지도 사찰에서 기청불사(祈請佛事)나 경회루의 기청도량(祈請度量)으로 행해졌다. 이 외에도 삼성당이나 성황과 같은 제사처에서도 기청제가 거행되었고, 이 밖에도 종묘·사직·북교 등 여러 산천에서 기청제가 다양하게 거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조선전기의 다양한 기청제의 양식이 배제되면서 사문(四門) 영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청제가 중심을 이루었다<sup>114)</sup>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기청제인 영제는 국가의례 중 소사에 해당되며, 제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단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 도성과 주현의 四門에서 지내도록 했다. 축문에는 ‘모방산천지신(某方山川之神)’이라 쓰도록 하였다.

기청제는 고려시대 수재와 한재 등의 기상 이변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지내던 제사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국가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날씨가 개이기를 비는 제사로 치제되었다.

즉, 조선시대 기청제는 국중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내는 의례였고, 주현에서는 비를 그치게 하여 백성들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며 지내졌던 제사였다.

제주의 ‘마블림제’는 제의의 명칭으로 보아 ‘장마 그침’을 기원하였던 의례로, 이는 기청제인 영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영제는 장마가 그치기를 비는 의례였으며, 이는 백성들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므로 주현에서도 행해졌던 국가의례이다. 특히 제주는 년 중 강우량이 많은 곳이므로 기청제의 치제는 다른 지방보다 더 활발히 행해졌을 것이다.

제주의 당에서는 행해지는 마블림제는 당신계열에 따라 의례를 행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토산당신계열에서는 6월 17일과 18일에 행해지고 있

114) 최종성, 「한국 祈晴祭 연구」, 『역사민속학』 제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47쪽.

고, 송당본향당계열에서는 7월 13일과 14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중문하로산당계열에서는 8월 보름인 추석에 마불림제를 지내고 있어<sup>115)</sup> 당신에 따른 마불림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농경신과 목축신과의 관계

일반 본풀이 중 세경본풀이는 인간 세상에 오곡의 씨앗이 전래되는 과정을 알려주며 풍농과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는 무가이다.

세경본풀이는 백중의 기원은 물론 농경신과 목축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김진국대감과 자지국부인은 부부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부처님께 빌어 딸을 얻어 자청비라 이름하였다. 그 딸이 커서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글공부하러 온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을 본 자청비는 첫눈에 반해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나선다. 그리고 삼년을 같이 글공부를 한다. 삼년 글공부를 마치고 돌아 올 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과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올라 간 문도령은 소식이 없고 자청비는 문도령을 기다리다 머슴 정수남이의 꾀임으로 문도령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정수남이에게 속은 길 알자 정수남이를 죽여 버린다. 이 일로 자청비는 부모에게서 쫓겨나 집을 떠난다. 서천 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은 자청비는 정수남이가 죽은 곳을 찾아가 환생 꽃으로 살려 부모님에게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자식은 필요 없다 하며 다시 내쫓는다. 집에서 쫓겨 난 자청비는 옥황 선녀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과 함께 옥황으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간 자청비는 하늘나라의 난리를 막아주고 옥황상제에게 오곡의 씨앗을 얻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자청비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 온 날이 칠월 열나흘이며 바로 이 날을 백중이라 하게 되었다. 자청비는 인간 세상에서 굶주린 정수남이를 만나 밥을 얻어먹게 해주는데, 밥을 안 준 아홉 장남에게는 급병을 주고 아홉 쉼과 쟁기에 흉해를 주었다. 그리고 밥을 준 노인들에게는 대풍년을 주었다. 문도령은 상세경이 되고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었으며 정수남이에게는 하세경인 목축신이 되게 하여 칠월 마불림제를 받아먹게

115)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일진사, 2001, 195쪽: 중문하로산당계열에서는 당신의 신의를 꺼내 말리는 한편 가을 수확의 풍등을 기원하는 추수 감사제를 겸하고 있는 의례라 할 수 있으며, 토산당신계열에서의 6월 의례는 마불림제인 동시에 산육과 치병은 물론 풍농제까지 겸하고 있다.

해 주었다.<sup>116)</sup>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탄생에서부터 뛰어난 지혜와 활약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 천자에게 신직을 부여 받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에서는 상세경을 문도령, 중세경을 자청비로 설정하였고 하세경은 목축신 정수남이라 하였다. 이는 목축은 농경을 위한 것이라는 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농경으로 인한 수입보다는 목축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경본풀이는 이달춘 심방이 구송하는 내용이다.

오곡열두시만곡을 마련하던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 자청비 마련하고  
하세경 정의어신정수남이  
칠월마블림으로 받아먹기 마련하고...<sup>117)</sup>

위의 내용에서는 칠월마블림제는 하세경인 ‘목축신을 위한 제사’라 하고 있다. 목축신인 정수남이는 굶주린 신으로 밥을 주지 않은 아홉 장남에게는 급병을 주고 아홉 마리의 소와 쟁기에 흉해를 주는 무서운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목축에서의 사고는 우마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경신보다도 목축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더 명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블림의례는, 장마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없게 하고자 치제하였던 ‘기청제’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고려시대에는 산천에서 벌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산천에서의 제사가 금지되면서 점차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치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 백중마블림제가 목축의례로서 갖는 의미

11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진』 개정판, 각, 1999, 266-299쪽.

117)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辭典』, 新丘文化社, 1980, 361쪽.



마불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 그 의미가 정립되지 않았지만, 백중시기 백중제를 겸하고 있는 마불림제에 대해 이수자<sup>118)</sup>는 우마증식과 관련이 깊은 의례라고 하였다. 현용준도 ‘이 의례는 7월 13일과 15일에 하는 당이 가장 많고 이 의례를 ‘백중제’라고 하는데 이는 우마의 증식을 비는 의례로 7월 마불림의례 당굿은 우마증식의 의미가 큰 듯하다’<sup>119)</sup>고 하였다.

송당본향당계열의 당신(堂神)은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이므로 백중시기에 지내는 마불림제는 목축의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한다. 다음의 보고서에서도 송당의 마불림제를 목축의례라고 하였는데, ‘마불림제’의 성격을 보면 음력 7월 13일과 14일의 송당본향당계열에서는 백중제를 겸하며 당굿에서는 <산신놀이>를 하는 등 마불림보다는 백중의례 의미가 더 크다<sup>120)</sup> 하여 백중시기의 마불림제에 대해서는 목축의례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세경본풀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백중시기 백중마불림제는 모든 우마를 보호하고자 지내는 의례로 이는 우마에게 닥칠 재앙을 미리 막고자하여 목축신 정수남이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목축은 사고의 위험이 컸으므로 목축신에 대한 제사가 중요시 되었을 것이고, 이는 목축신을 악독한 신으로 표현하여 목축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118) 이수자,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281쪽.

119) 현용준, 『濟州道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497쪽.

120) 진성기, 「제주 무속학 사진」, 제주민속 연구소, 2004, 109쪽: ‘백중마불림’의 당제 순서는 ①초감제 ②여명올림 ③본향들음 ④산만음 ⑤액막음 ⑥산신놀이 등이다. 그런데 산신놀이 대목에서는 각 본향당의 성격에 따라 세경놀이·요왕맞이·영감놀이 등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 IV. 목축의례의 종합적 성격

제주의 목축의례를 역사적 성격과 민속적 성격으로 구분하였다. 역사적으로는 몽골식 목장이 설치될 시기에 방성이 비치는 곳이라 하여 대규모의 목장이 설치 되었으므로,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우마의 무병과 번성을 기원하는 마조제가 행해졌을 것으로 본다. 민속적으로는, 목축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방목지의 산천신에게 우마의 무사와 번성을 비는 의례들이 행해지고 있다. 민간 의례는 개별적이면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 1. 역사적 성격

제주는 연중 기후가 따뜻하고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이 있어 겨울에는 북풍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마의 먹이를 풍부하게 해주어 우마의 방목지로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해발 200미터 이하의 해안 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이 지역이 섬의 53%가 되며, 국영목장으로 이용되었던 해발 500미터까지는 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섬 전체가 목장으로써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대는 양질의 수초가 풍부하며 맹수가 없어 우마를 방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해발 200미터 아래쪽 해변에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우마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우마를 해발 200미터 위로 옮기고 돌담을 둘러 목장을 정비 하였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은 명마로 알려져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 진상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 진상되며 국가의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탐라의 말은 몽골식 목장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고려 조정에 진상되고 있었다. 말의 진상과 관련해서는 『고려사』 문종 25년(1071)에 ‘섬의 말을 잘 돌보지 않은 관리에게 벌을 주었다’고 하였고, ‘동년에 탐라에서 명마를 바쳤다’고 하며, 고종

45년(1259)에는 ‘제주의 공마를 관원들에게 내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목장의 설치는 충렬왕 2년(1276)에 몽골마 160필을 수산평에 방목하여 몽골식 목장이 개설되었다. 탐라에는 방성(말의 번성을 관장하는 별)이 비친다 하여 목장을 설치하였으므로, 목장의 설치와 더불어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국가에서는 목축을 위한 제사를 마조제라 하여 상설 제단을 두고 봄·여름·가을·겨울 일 년에 네 차례 길일(吉日)을 정해 지냈다. 고려시대 마조제는 산천신에게 복을 비는 제사로, 이들 제사들은 도교식·불교식·무속식으로 지내고 있었다.<sup>121)</sup> 그러나 고려시대의 의례들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유교식 의례로 바뀌어갔다. 국가 차원의 의례에서는 무당을 배제 시켜 관리들이 제관이 되어 치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존폐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왕실의 안녕과 관련된 의례들에 대해서는 쉽게 무당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군마를 위한 마조제는 국가의례 중 소사로서 치제되었다. 국가의례를 예조에서는 유교식으로 치제하고 있었는데, 마조제에 대해서는 사복시가 무당들을 시켜 무속식으로 치제하였고, 마조제는 세종 시기까지도 무당과 기생들에 의해 치제되고 있었다.

조선시대 마조단은 한양과 제주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주가 다른 지방과는 달리 군마의 생산지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말의 무병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마조단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1852년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속식 마조제에서 유교식 마조제로 바뀌어 치제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조제와 더불어 관아에서 치제하였던 제사로 공마해신제가 있다. 목장의 공마는 배를 이용하여 육지로 옮겨졌는데 뱃길이 워낙 험했기 때문에 공마선을 바다에 띄우기에 앞서 해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해신제를 지냈다. 해신사의 설립은 순조 20년(1820)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부터 민간에서는 해신에 대한 의례는 지

121) 이육, 「불교 기양의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논문, 1999, 42쪽: 만약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 경우에는 불교는 불교식으로, 도교는 도교식으로, 무속은 무속식 나름의 의례를 행하였다

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는 1488년 최보의 『표류기』에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광양사·차귀사·천외사·조춘사 등의 신사에서 제사 지낸 후에 바다를 건넌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아서 넓고 큰 바다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sup>122)</sup>,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에서는 “무릇 행선할 때에는 신의 재앙만을 알지 관령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진상선이 바람을 기다릴 때는 역시 반드시 신당에 하직을 하는데, 이 같은 풍습은 다른 읍에는 없다”<sup>123)</sup> 라고 하여 제주에서 해신에 대한 무속의례가 성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해신에 대한 무속식 의례는 해신사가 설립된 후에도 민간에서는 계속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sup>124)</sup> 조선시대 제주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무속의례가 성행하였지만 해신제 등 생명과 직결된 의례들에 대해서는 관아에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제주 지방의 수령들 또한 의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지하거나 혹은 묵인하는 방법으로 허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민속적 성격

우리나라는 말을 신성시하는 신마 사상이 있다. 말은 영혼의 안내자이며, 큰 인물의 탄생과 죽음을 알려주는 예견자이고,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모셔진다. 우리나라에서 말은 비싸고 귀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말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게 되었고 무한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여겼으며 이를 신격화하였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말을 신성시하지 않고, 가축으로써 소와 더불어 농경에 이용되었으며 말고기는 다른 가축의 고기처럼 식용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제주에서 말 자체를 신체로 하여 모시는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민간에서 행해지는 목축의례들은 ‘연중 방목’으로 인해 형성된 의례들이

122) 최부 저, 『표해록』, 『옛 제주인의 표해록』, 김봉옥 역,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42쪽.

123) 이형상 저, 『남환박물』, 『속담라목』, 김봉옥 역, 제주문화방송, 1994, 336쪽.

124) 답수계 저, 『중보탐라지』, 제주문화원, 352쪽: 차귀사·천외사는 1882년에 철폐 되었다.

많다. 연중 방목은 우마를 산악지대에 풀어놓고 키우며 가끔 한 번씩 찾아가서 확인판 하기 때문에 우마의 사고는 우마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마에 사고가 없길 바라며 우마가 번성하길 신에게 빌어야 했다.

고려시대 제주는 해안 일대까지도 모두 방목장이었다. 우마의 방목으로 민가의 피해가 많았으므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세종 11년(1429)에 말이 생활하는 지역과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을 구분하였다. 그 후 숙종 30년(1704)에 송정규 목사가 제주의 국영목장을 10소장으로 정비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유지 되었다. 10소장의 우마는 목자(牧子)들이 담당하였으며 우마의 번식 숫자가 많으면 상을 받았지만, 우마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그 숫자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를 ‘동색마(同色馬)’라 하여, 말아 기르던 우마에 사고가 나면 똑같은 우마로 그 수를 채워 놓게 하는 변상제도였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부모형제는 물론 집안의 세간까지 팔아야만 이를 변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목자직을 맡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다.<sup>125)</sup>

민간의례 중 백중제는 음력 7월 14일 밤에 우마를 방목하는 곳에서 지내는 목축의례로 우마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백중제’ 의례를 행한다. 백중제가 행해지는 장소는 우마를 방목하는 목장은 물론 목장 내의 바령밭·오름·연못·계곡·들판·해변까지도 이에 해당된다. 즉 제주의 전 지역이 목축의례의 장소였던 것이다.

백중제는 방목지에서 산천신에게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는 제사로, 이는 고려시대 산천에 복을 빌던 의례의 형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민간인들이 산천신에게 빌어 생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산천신앙은 고려시대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태종 12년에 사간원에서는 백성들이 산천신에 대한 제사 지내는 일을 금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천자가 된 후에야 천지에 제사할 수 있으며 제후가 된 후에야 산천에 제사할 수 있습니다. 산천에 대한 제사는 卿·大夫·士·庶民이 제사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이 비록 신에게 제사를 올려 아첨한다 할지라도 어찌 신이 흠향하겠습니까. 지금

125) 이권 저, 「제주 풍토기」, 김일우 역, 『濟州 古記文集』, 제주 문화원, 2007, 169쪽.

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속일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산천에 제사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게 분분하여 바람에 나무끼듯 쓰러지고 쏠리어 나라의 진산으로부터 군현의 명산대천에 이르기까지 모독하여 제사하지 않음이 없으니 예에 지나치고 분수를 넘음이 심합니다. 이제부터 중외의 대소 신하들이 함부로 산천에 제사 지낼수 없게 함으로써 존비의 분수를 밝히소서.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통렬히 법으로 다스리소서. 126)

고려시대부터 백성들이 산천을 찾아 복을 빌던 제사들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신분에 맞지 않을 경우는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법으로 금하였다.

제주 목축의례 중 대표적인 백중제는, 고려시대 산천신에게 복을 빌었던 의례이다. 백중날 산천신에게 우마가 번성하길 기원하던 의례였는데, 조선시대 산천제를 지내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음사로 규정되면서 백성들은 산천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백중전설의 내용은 테우리 백중의 공덕에 대한 마주들이 보은(報恩)이며 후사(後嗣)가 없는 무사귀신(無嗣鬼神)에 대한 제사이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제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백성에게 ‘공덕’이 있어 보답하거나 또는 후손이 없는 ‘무사귀신’에게 제사 지내어 원귀가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는 백중 전설에서 백중이 살아서는 우마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인에게 공을 세웠고, 죽은 후에는 후손이 없어 우마를 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 지내게 된 것으로, 내용으로 보아서 테우리 백중은 조선시대 제사 지내 줄 대상으로서 조건에 합당하지만, 백중제가 개별적이며 은밀하게 지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즉 백중제는 고려시대 생업과 관련하여 백성들이 산천신에게 빌었던 의례였는데, 조선시대 백성들이 산천신에 대해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게 되면서 백중제는 ‘백중의 기제사’라 하여 밤중에 조용히 지내는 의례로 바뀐 것으로, 이는 백중제의 말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방목하는 우마는 잃어버릴 위험이 많다. 방목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찾는 데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른다. 이런 경우는 인간의 능력으로 우마를 찾기가 힘

126) 『태종실록』 권24, 태종12년 10월 8일: 天子然後祭天地, 諸侯然後祭山川, 尊卑上下, 各有分限, 截然不可犯也. 非卿大夫士庶人之所當祭也. 彼雖諂祀, 神豈享之. 今國人不識鬼神之不可欺, 山川之不可祀, 泯泯禁禁, 靡然成習, 自國之鎮山, 以至郡縣名山大川, 罔不瀆祀, 其越禮踰分甚矣.

들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 일을 도와주는 신으로 윤남동산당(堂)이 있다. 윤남동산당에 가서 빌면 신의 사자(使者)인 까마귀가 나타나 우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 까마귀가 신의 사자로 등장하는 것은 제주 무가의 '강림차사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까마귀가 신의 사자라는 인식은 우리민족의 오랜 신앙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윤남동산당과 마을의 설촌 등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필요하다.

낙인코시나 귀표코시는 방목에 앞서 우마에게 표시하며 행하는 의례들이다. 이런 의례들은 현장에서 간단히 행하는 것으로 우마의 상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이나 귀표를 하는 순간의 사고가 없길 기원하는 의례들이다. 제주에서 우마에 귀표를 하는 것은 오래된 방법으로 이 또한 제주만의 독특한 표시 방법이지만, 낙인과 귀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자료가 미비하다.

'마불림제'는 장마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의례'이다. 고려시대에는 '영제'라 하여 기상이변을 미리 막고자 하여 지내던 의례였다. 그러나 조선 시기에는 장마가 그치기를 비는 의례이면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날씨가 맑기를 바라는 의례로 치러졌다.

기청제는 '영제'라 하여 국가의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청제인 영제는 국중과 주현에서 지내던 의례로 제일은 봄·가을 일 년에 두 차례 지내도록 하였으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수시로 지내도록 하였다.

제주는 년 중 강우량이 많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 일 년에 한라산을 볼 수 있는 날은 불과 13%에 불과하며, 50일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여름철 좁쌀을 파종하고 나면 비가 내리지 않고 '마가지(가뭄)'가 되어야만 그 해의 조 농사가 풍년이 된다. 이에 제주에서의 기청제인 마불림제는 마을의 공동의례로서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마불림제가 일반적으로는 '장마 그침'을 기원하는 제의로 지내졌다면, 칠월 마불림제는 목축의례로서의 의미가 큰 의례이다. 이는 제주 무가의 '세경본풀이'에서도 '칠월 마불림제는 목축신인 정수남이가 받아먹는 제사로 마련했다'고 하였는데, 칠월마불림제는 목축을 위한 의례로서 우마에게 닥치는 재앙을 막기 위해 지내는 의례로 행해졌다.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목축신인 정수남이는 무섭고 악독한 신으로 표현되었다. 제주에서는 무서운 신에 대해서는 더욱 명심하는데, 제

주 속담에 “귀신은 먹은 값은 못해도 못 먹은 값은 한다”고 하여, 무서운 귀신일 수록 더욱 명심해서 섬겨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를 무서운 신으로 설정한 것은 방목하는 우마에게는 항상 사고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마를 돌보는 목축신에 대한 의례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불림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불림제’를 조선시대 국가의례로 행해졌던 기청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생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례이며, 제주의 경우 칠월 마불림의 경우는 목축과 관련이 깊은 의례로 행해졌다고 본다.

제주 민간의 목축의례는 방목과 관련된 의례들이 많고 대부분의 의례들은 목축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개별적인 의례로 행해지고 있으며 목축의례들은 남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으며, 의례의 치제는 무속적인 의례로 행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V. 맺음말

이 글은 제주 지역의 목축의례에 관한 연구로서,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방 관아에서 주관하였던 목축의례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역사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제주 관아에서 주관하였던 목축의례에는 마조제·마제·공마해신제가 있었고,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목축의례에는 낙인코시·귀표코시·맞볼리는 코시·윤남동산당의례·백중의례·백중마불림의례 등이 있었다.



관아에서 주관 하였던 의례 중 마조제는 한양과 제주에만 마조단을 두어 치제 하였던 국가의례였다. 제주지방의 마조제를 『국조오례의』와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마조제는 사복사에서 주관 하면서 의례의 형식에 있어서는 무당과 기생들이 모여 가무를 하며 즐기는 잔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 는 조선 후기에 마조단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에는 나타나는데, 이는 무속식 마조제에서 유교식 마조제로 바뀌어 치제되기 시작한 시기를 알리는 것으로 본다.

제주의 마조단이 설치된 곳은 ‘광양’이다. 한양의 경우 고려시대 제단을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제주에서도 이미 설치되어 있던 제단에서 마조제를 지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고려시대 마조단에 대해서는 의귀리의 ‘무너진 연디’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제’는 국가의례로서 임금의 강무 전 또는 지방 수령의 수렵 전에 지내는 제사이다. 제주목사의 가을 순력에는 수렵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 때 마제가 치제되었을 것이다. 마제가 군사와 관련된 의례이지만 『국조오례의』에는 선목·마사·마보의 예에 따라 치제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는 말(馬)과 관련된 의례로 볼 수 있다.

‘공마해신제’는 진상하는 말을 실은 배가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해신에게 비는 제사이다. 국가의례로서 해신에 대한 제사는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바다의 용에게 지내는 제사였지만 제주에서의 해신에 대한 제사는 바람을 다스려 항해를 무사히 하고자 하여 행해졌던 의례이다.

둘째, 민간의 목축의례 중 낙인코시에서는 낙인의 유래와 낙인글자 및 그 속에 담긴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제주에서 낙인이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 몽골이 탐라목장의 말에 낙인을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관우마(官牛馬)에 낙인을 하여 관리하였다. 조선시대 관우마에는 천자문의 70자 이내의 글자를 사용하였다. 관우마 외에 사우마에도 낙인을 하도록 하였는데, 사우마의 경우는 천자문의 70자 이외의 글자들을 사용케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사우마에도 천자문의 70자 내의 글자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민간에서 사용하는 낙인들은 대부분 간단한 글자나 독특한 모양의 기호들이 사용되었다.

낙인을 하기 전에 낙인코시를 했는데, 제상에는 말을 걸 밧줄과 그 날 사용할 낙인을 함께 올려 지낸다. 낙인코시의 상처림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처음으로 그

림 자료를 제시하였다.

귀표코시는 귀표를 하기 전에 지내는 제사로, 개인에 따라서는 낙인코시와 겸하기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마의 귀표 모양에 대해 처음으로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고, 귀표코시의 상차림도 처음으로 그림 자료로 제시 하였다.

‘밭블리는 코시’는 밭에 씨앗을 뿌린 후 우마를 이용해 그 표면을 밟게 할 때 지내는 제사이다. 밭블리기는 제주만의 독특한 농법으로, 『왕조실록』에는 태종시 기부터 관련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고려시대부터 이미 행해지던 오래된 농법이라 할 수 있다. 제사의 의미를 파악해 본 결과 여름철 밭을 밟게 하는 것은 말에게는 힘든 노동이므로 미리 제사를 지내어 우마의 사고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례에서는 우마를 위하지 않고 테우리를 위하는 제사로 지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우마를 돌보는 테우리를 위해 주어서 우마를 잘 보호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윤남동산당’은 우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서 비는 신앙처이다. 현지 조사 결과 이 당을 찾아 빌 때는 다음의 세 경우였다. 첫째는 방목하는 우마를 임시 찾아와 이용하려고 할 때, 둘째는 방목하는 우마가 방목지 범위를 벗어나 잃어버렸을 경우, 셋째는 백중제를 지내러 가기 전에 먼저 의례를 지내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 의례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우마를 임시 이용하고자 할 때의 당의례는, 쌀밥에 생선을 곁고 돈과 술을 제물로 준비하고 당에 올려 절을 한 후 그 음식을 방목지로 갖고 가서 점심으로 먹으면서 자신의 우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우마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의례를 행한 후 100보 밖으로 가서 누워 까마귀를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따라가서 우마를 찾는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백중날의 의례는 백중제물을 따로 조금씩 준비하여 목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당의례를 지낸다. 윤남동산당에서의 의례에 대해서는 현지 자료 수집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백중의례’는 제주의 대표적인 목축의례다. 우리나라의 백중제가 농경신에 대한 의례라면 제주의 백중제는 목축신에게 지내는 의례로 행해진다.

백중 전설의 내용으로 볼 때 백중제는 백중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으나 백중제의 ‘말명’과 ‘비념’ 속에 등장하는 신을 분석한 결과 백중제는 과거 산천신에게 드리던 제사임을 알 수 있었다.

‘백중마불림제’는 백중시기 마을의 당에서 지내는 의례이다. 마불림의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인 ‘기청제(祈請祭)’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청제와 비교하였다.

세경본풀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칠월마불림제가 하세경인 정수남을 위한 의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에서의 목축은 농경보다 더 중요시 되었으며, 농경보다는 목축에서 사고의 위험이 더 컸기 때문에 목축신을 위한 의례를 중시하여 우마의 무사를 기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송당본향당에서 산신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칠월 마불림제는 목축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례로서 행해졌던 의례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제주 지역 목축의례의 특징을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관아에서 주관하던 목축의례들은 고려시대 무당에 의해 치제되었던 무속식 의례들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무속식 의례가 유교식 의례로 바뀐 시기는 공마 해신제는 해신사가 설립된 1820년, 마조제는 마조단이 설립된 1852년 이후이다. 조선시대 음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관아에서는 이들 의례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또는 방조하는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19세기까지도 무속식 의례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넷째, 민간의 목축의례들은 방목과 연관성이 많았다. 연중 우마를 방목하기 때문에 우마에 닥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상신과 산천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목축의례의 신은 하늘의 ‘옥황 테우리’인 천상신에서부터 산천의 신인 ‘지황 테우리’와 인간 세상의 ‘인황 테우리’가 모두 목축에 도움을 주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제주의 목축의례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무속식 의례로 치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목축의례들은 고려시대의 치제 방식이 지속적으로 지켜졌으며, 민속적으로는 고려시대 천상·산천·우마에 대해 치제하였던 의례들이 조선시대 음사 규정에 의해 금지되면서 백중전설을 등장시켰을 것으로 본다.

문화에 있어서는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제주의 향토문화야말로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 형성된 문화이다. 제주의 목축문화는 척박하고 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과 사람들

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지길 바란다.

이 글은 사료의 한계로 인해 현장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한 바가 없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고문서 자료의 발굴을 통해 내용이 더욱 보완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1. 문헌자료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金錫翼, 『耽羅紀年』

金聖久, 『南遷錄』

李益泰, 『知瀛錄』

李源祚, 『耽羅誌草本』

李衡祥, 『南宦博物』

\_\_\_\_\_, 『耽羅巡歷圖』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강민수, 『제주의 말』,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1999.

\_\_\_\_\_, 『제주 조랑말』,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한국민속대관』 4, 성인문화사, 1982.

고재환, 『제주도 속담사전』, 민속원, 2002.

고창석, 「목마장과 마정」, 『북제주군지』 상,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 2006.

\_\_\_\_\_,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 세시기번역총서1, 2003.

\_\_\_\_\_, 『덕수리』민속지, 신광씨림, 2007.

\_\_\_\_\_, 『하도리』민속지, 신광씨림, 2007.

국립제주박물관, 『고대의 말』, 애드갤러리, 2002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 下, 서귀포문화원, 2006.

-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마문화연구총서V,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 북제주군,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 보고서』, 각, 2004.
-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상,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 2006.
-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濟州道の 食生活』, 대영인쇄사, 1995.
- 신동원, 『한국마의학사』, 마문화연구총서VIII, 한국마사회박물관, 2004.
- 이수자,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영배, 『濟州島 烙印의 字型 調査』I, 『調査研究報告書』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2.
- \_\_\_\_\_, 『濟州島 烙印의 字型 調査』II, 『調査研究報告書』 제8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3.
- 임동권, 『한국 세시풍속 연구』, 집문당, 1985.
- 임동권 외, 『한국의 馬民俗』, 집문당, 1998.
- 장덕지, 『제주마 이야기』, 제주문화, 2007.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옛터』, 세림원색인쇄, 1996.
- \_\_\_\_\_, 『제주목 지지총람』, 세림인쇄사, 2002.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이용옥심방 본풀이』, 도서출판 보고서, 2009.
- 제주도·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 설화집성』, 1985.
- 제주도, 『濟州의 民俗』I, 해동인쇄사, 1994.
- \_\_\_\_\_, 『濟州의 民俗』II, 해동인쇄사, 1994.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전통문화』, 대영인쇄사, 1996.
-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김봉옥 역, 1994.
- 제주문화원,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 제주도지부, 2006.
- \_\_\_\_\_, 『제주 古記문집』, 제주문화원, 2007.
- 제주시, 『제주의 향토민요』, 예술, 2000.
- \_\_\_\_\_,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디자인 아이필, 2005.
- 제주우당도서관, 『제주도의 옛 기록』, 홍성목 역, 1997.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제주축산사』, 선진인쇄사, 2007.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종름 저, 『형초세시기』, 상기숙 역, 집문당, 1996.

주강현, 『한국의 두레』 1, 집문당, 1997.

진성기,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_\_\_\_\_,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_\_\_\_\_, 『제주 무속학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4.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탐라문화연구소, 2008.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2000.

표인주, 『공동체 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199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시풍속』, 세광종합인쇄, 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한라일보, 『잊혀져 가는 문화유적』, 각, 2002.

한형주,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문고, 1976.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2) 논문 및 기타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강소진,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고광민, 「제주도 마소치기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1998.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태」, 『탐라문화』 제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_\_\_\_\_,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탐라문화연구소, 1998.

김동진, 「제주 향토사 관련 자료의 종류와 역사적 성격」, 『제주도사 연구』 제7집, 제주도사연구회, 1998.

- 김동전, 「제주의 마정과 공마」, 『제주도지』 제2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 \_\_\_\_\_, 「제주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 연구회. 2000.
- \_\_\_\_\_, 「조선시대 제주 목마장의 역사」, 『제주 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7.
- 김해영, 「朝鮮 初期 祀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문무병, 「제주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2.
- 변성구, 「민요의 후렴」, 『민요론집』 제2호, 민속학회 민속원 1993.
- 이범직, 「조선초기의 五禮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이수자,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역사민속학』 제19호, 2004.
- 이육, 「佛敎 祈儀禮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논문, 1999.
- 장정룡, 「강원도의 馬信仰考」, 『한국민속학』 18, 민속학회, 1985.
- 최종성, 「한국 祈晴祭 연구」, 『역사민속학』 제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3. 마을지

- 『高山郷土誌』, 고산향토지편찬위원회, 2000.
- 『둔지오름』, 한동리마을지편찬위원회, 경신인쇄사, 1997.
- 『용담동지』, 용담동마을지편찬위원회, 세림인쇄사, 2001.
- 오성찬 외, 『함덕리』 제주의 마을 ③, 도서출판 반석, 2002.
- 오성찬 외, 『고성리』 제주의 마을 ⑤, 도서출판 반석, 2002.
- 오성찬 외, 『봉개동』 제주의 마을 ⑦, 도서출판 반석, 2002.
- 오성찬 외, 『화북리』 제주의 마을 ⑨, 도서출판 반석, 1989.
- 오성찬 외, 『표선리』 제주의 마을 ⑩, 도서출판 반석, 2002.



#### 4. 제보자

강도중(남, 62세, 2007, 성산읍 시흥리)  
강두철(남, 72세, 2007, 성산읍 신산리)  
강범주(남, 70세, 2009, 표선면 가시리)  
강봉협(남, 76세, 2007, 성산읍 수산리)  
강석주(남, 70세, 2007, 구좌읍 송당리)  
강태춘(남, 75세, 2007, 표선면 삼달리)  
강한준(남, 76세, 2007, 표선면 세화1리)  
고태순(남, 78세, 2007, 성산읍 수산리)  
고태오(남, 76세, 2007, 구좌읍 하도리)  
고한구(남, 72세, 2009, 제주시 봉개동)  
김규석(남, 72세, 2007, 표선면 성읍1리)  
김범주(남, 70세, 2009, 표선면 성읍1리)  
김선중(남, 71세, 2009, 구좌읍 송당리)  
김성준(남, 76세, 2007, 성산읍 수산리)  
박창준(남, 67세, 2007, 표선면 성읍2리)  
오국현(남, 76세, 2009, 표선면 가시리)  
정순원(남, 70세, 2005, 표선면 성읍1리)  
정의문(남, 75세, 2007, 표선면 토산리)  
홍상표(남, 61세, 2009, 표선면 성읍1리)  
홍인남(남, 54세, 2007, 표선면 성읍2리)